

석사학위 논문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제주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攻

부 경 선

지도교수 류 집 숙

2006年 1月 日

碩士學位論文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주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攻

부 경 선

지도교수 류 점 숙

2006 年 1月

碩 士 學 位 論 文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주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류 점 숙

이 論 文 을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6 年 1 月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幼 兒 教 育 專 攻

부 경 선

부경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06 年 1月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유아의 도덕성 발달의 성격과 특징	5
2. 유아 도덕교육의 내용과 통합적 방법	11
3.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과 가치	14
4. 선행 연구의 고찰	18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검사도구	20
3. 연구절차	27
4. 자료처리	32
IV. 연구 결과	34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34
2.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6

V. 논의 및 결론	42
1. 논의	42
2. 결론 및 제언	45
참고 문헌	46
부 록	50
1. 제주 전래동화	50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65
3. 도덕판단 반응치의 체크지	67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평정 척도	68
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안	78
영문 초록	84

표 목 차

<표Ⅲ-1> 프로그램 적용 전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검사	19
<표Ⅲ-2> 도덕적 판단력 검사자의 내용별 문항	20
<표Ⅲ-3> 통합적 도덕교육 적용을 위한 제주 전래동화	22
<표Ⅲ-4> 실험처치 프로그램	29
<표Ⅲ-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안 예	33
<표Ⅳ-1>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집단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Ⅳ-2> 집단에 따른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35
<표Ⅳ-3> 공변량 분석에 의해 조정된 도덕적 판단력의 사후검사 평균의 집단 비교	35
<표Ⅳ-4> 도덕적 행동에 대한 집단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37
<표Ⅳ-5> 집단에 따른 도덕적 행동에 대한 공변량분석표	38
<표Ⅳ-6> 공변량 분석에 의해 조정된 도덕적 행동의 사후검사 평균의 집단 비교	39

그림 목 차

[그림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도덕적 판단력 점수 변화 변화량	36
[그림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예절 항목의 점수 변화량 ...	40
[그림Ⅳ-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질서 항목의 점수 변화량 ...	40
[그림Ⅳ-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절제 항목의 점수 변화량 ...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군자, 즉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성 위기의 시대라고 칭할 만큼 심각한 도덕성 상실 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가정과 학교 나아가 지역 사회 공동체의 기능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도덕성 상실의 범위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소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도덕성 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과제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정희영(2000)은 일반적으로 유아기가 인격형성이나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기본 시기이고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는 도덕적 인식력을 지닐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도덕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Piaget(1932)는 생래적으로 도덕성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사고가 성숙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Smetana(1981)는 1970년대 이후의 유아기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의 도덕성은 1.5세 정도면 나타나게 되고 2세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발달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덕성 발달의 토대가 되는 시기는 유아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바람직한 인격교육의 기초로써 유아기의 도덕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도덕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실시하는 유아의 도덕교육들은 대부분이 유아들에게 옳고 그른 행동이나 규범들을 제시하고 따라할 것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훈육방법인 덕목론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유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에 대한 도덕적 추론을 발달시키기에는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덕교육인 자율론적 접근에 의한 도덕성 교육방법이 첨가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율론적 접근에 의한 도덕성 교육방법이 선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과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금자, 2003).

내적 기준은 꾸중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칭찬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칭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금자, 2003).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도덕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타지(fantasy)에 늘 가득 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강한 동일시를 느끼게 된다. 이런 동일시는 유아들에게 도덕성을 길러주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손쉽게 들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동화이다. 권정숙(1986)에 의하면 동화는 유아의 실존적 경험을 통합시켜 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심리적 성숙을 도와줌으로써 성장의 고통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동화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많은 장르 동화 가운데 전래동화는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적합한 이야기로 재구성한 동화로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 이를 통하여 유아들은 자기 속에 있는 선을 지향하는 요소와 악을 지향하는 요소 가운데 어느 것에 따르고 어느 것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심리적 욕구로 구성되어진 전래동화는 선한 행동이 되풀이되고 악한 행동이 벌을 받는 장면과 이야기가 반복됨으로써 유아에게 지적 정의감을 일으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등장인물과 일체가 되어 그 모든 사건과 도덕적 내용을 함께 체험하는 등 도덕적 지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정진, 2001).

전래동화의 수와 장르는 다양하지만 제주지역의 전래동화라고 특징지어 불리어지는 동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전래동화에 '제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방의 동화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바탕으로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도덕교육적 성격과 제주인의 가치와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어 유아들이 동화를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박재형, 1997).

실제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중요시 여기고 전래동화를 이용하여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필요한 도덕적 행동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행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도덕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통합적인 도덕교육활동을 통한 유아들의 도덕성 교육에는 소홀

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는 유아들의 통합적인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도덕적 행동의 변화 뿐 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 능력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특정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를 통해 새로운 도덕적 내용을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통합적인 도덕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심의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만 5세 유아들에게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갈등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제주지역 중심의 전래동화를 매개로 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 전래동화를 통한 도덕교육 활동의 경험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래동화

전래동화는 민간설화가 가진 구전, 기록, 정착 과정을 거쳐 구전 동화로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민중들이 즐겨 듣고 구연하던 민담 중에서 표현이 다듬어지고 유아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된 동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이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를 활용하였으며, 이곳에서 자생된 것으로 '제주'라는 지역 명을 사용하여 다른 지방의 전래동화와 구분한 것이다.

2)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은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포함된 동화를 듣기 활동을 통하여 동화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의, 동극, 그리기 및 쓰기, 그룹게임 등 각 영역간의 활동과 유아의 경험을 통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판단력은 유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 도덕적 규칙의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력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도중심판단과 결과 중심판단으로 구분한다.

4) 도덕적 행동

도덕적 행동은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도덕적 행동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질서, 예절, 절제의 3가지 덕목을 선정하여 일상생활 장면에서 유아들이 이러한 도덕적 행동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절, 질서, 절제의 3가지 도덕적 덕목에서의 도덕적 행동만을 측정했으므로 그 외의 도덕적 행동의 변인은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적인 수준이 아닌 제주시에 소재한 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5세 유아 60명으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 도덕성 발달의 성격과 특징

1) 유아 도덕성 발달의 성격

도덕성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More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사회생활의 규범인 예절, 습관, 생활양식을 뜻한다. 그러나 도덕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생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도덕성이라 함은 인지, 정의, 행동의 3요소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인간관계의 특정 자극에 대한 특정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인지적 요소는 무엇이 도덕적 규범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도덕적 개념의식 또는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고, 정의적 요소는 규범에 합치된 행동을 하려는 태도로 도덕적 감성과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행동적 요소는 도덕적 규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덕적 실천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말에 '도덕성'(道德)은 본래는 道와 德의 합성어이다. 道는 마땅히 지켜야(행하여야)할 도리(바른길)이고, 德은 道를 터득(내면화)한 사람이 가지는 바른 마음이다. 이러한 덕은 일종의 힘, 즉 능력으로 작용하며, 덕으로서의 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한다. 하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존경(尊敬)을 발생시키는 힘이다.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도덕성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즉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남궁 달화, 2003).

뒤르켐은 도덕성을 인간의 행위를 미리 결정해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칙들의 세계로 보았다. 여기에서의 규칙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양심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박병기·추병완, 1996)), 장병립(1982)은 진실한 도덕성이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도덕률대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Kohlberg(1962)는 도덕성을 도덕적인 갈등사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판단의 근

거나 이유의 특성으로서 도덕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에 의해서 내면화되어진 사회적, 문화적 행동규칙으로서의 일반적 개념으로 도덕성을 정의했다. 이는 도덕성에 대한 인지적 입장으로 도덕적 행위를 단순한 습관의 학습으로 보지 않으며, 또는 초자아나 양심이라고 하는 비교적 심층적인 기능으로도 보지 않았다. 단지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적극적인 사태인지와 의도적 선택의 여지를 갖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안연경, 2001).

이상을 정리하면 도덕성이란 양심과 같은 것으로 한 생활 문화권 안에서의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일치하려는 마음과 무엇이 사회적 규범에 일치하는가를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옳고 그른 판단과 행동을 하려는 도덕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라 함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도덕적 개념과 태도가 형성되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등 일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성 발달에는 기본적인 도덕적 특징이 내면화(internalization)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면화란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감시와 통제가 없어도 도덕적 형식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기에는 특히 가정의 도덕적 규범을 따르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매일 접촉하는 주위사람들의 모범 행동을 관찰 학습에 의해서 내면화 되어간다.

특히, Piaget(1965)는 도덕성의 본질은 개인이 규칙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아들의 도덕성을 실재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어린 아동의 사고에 있어 기본적인 특징은 Piaget(1951)에 의하면 실재주의라는 것이다. 실재주의는 심리적이고 내적인 것과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 즉 주체와 객체를 구별할 수 없는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실재주의(moral realism)란 도덕성 의무를 자신에 대한 외적인 그 무엇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도덕적으로 존재하여 동기, 의도, 특정한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 세계와 물리 세계는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 있다. 이러한 도덕적 실재주의는 타율성과 일반적 존중의 개념 등에 의한 결과로 보았다.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수년 동안 Piaget의 도덕적 판단 차원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Rotenberg(1980)는 어린 아동은 나이 든 아동보다 충동적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고 비

효율적인 인지양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린 아동은 ‘반성성(reflecivity)’의 훈련을 받았을 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즉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주인공이 나쁠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이유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주인공의 의도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Kohlberg는 유아기의 도덕적 성숙 수준은 전인습적 수준인 1~2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1단계에서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구분할 수 없고 특히 권위자나 사회적 힘을 가진 거대한 타인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도덕성은 타율적이라는 것인데, 옳거나 그른 것은 권위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며 도덕적인 규율은 외부나 위로부터 주어졌 것이고 도덕적인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선택되거나 내부로부터 구성되어진 어떤 것이 아닌 것이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단계이다. 옳은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공정성, 상호성, 호혜성, 평등한 공유 등의 요소가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제나 물리적 실용적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시기의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에 근거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자라 할 수 있다(이재순,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의 도덕성은 타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옳고 그름의 행위를 판단하기에 유아들의 도덕성에 관한 학습은 말로써 전달하는 과정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장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모순 되는 점을 이해시키며, 일관성 있는 도덕성 개념과 태도를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2) 유아 도덕성 발달의 특징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관점은 크게 정신분석 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 이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은 도덕성의 정서적 측면, 인지발달 이론은 도덕성의 판단적 측면, 사회학습이론은 도덕성의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도덕성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Freud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이 인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원자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중에서 초자아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만약 자아가 원자아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초자아는 자아로 하여금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의 상실 등을 맛보게 하여 자아를 벌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덕성 발달은 초자아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또한 Freud는 초자아의 발달을 외디프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즉, 도덕성 발달에 대한 Freud의 이론에서 유아가 초자아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엘레트라 콤플렉스에 기초를 두었다(김성희·허혜경, 1999).

도덕성의 인지론적 접근에서 도덕성에 관해 살펴보면 Piaget(1932)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Piaget의 이론을 토대로 한 Kohlberg(1958)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기초가 되고 있다.

Piaget(1932)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크게 타율적 도덕성 단계와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타율적 도덕성(도덕적 실재론)은 아주 어린 아동은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일방적 존중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즉, 부모나 다른 성인들의 객관적인 규칙들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이 단계는 주로 강제적 도덕성, 절대적인 사고 유형, 그리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내재적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자율적 도덕성(공평과 협동의 도덕성)은 아동 중기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하여 보다 주관적인 감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험(주로 또래간의 상호 작용)은 협동적이고 박애적인 성숙을 더욱 증가시켜 주기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 Piaget는 특히 앞서 제시한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두 단계 중 타율적 도덕성 단계 가운데 유아기에는 내적 실재와 외적 실재의 요소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능력을 묘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적 의미에서 볼 때, 자기중심성은 아동들의 ‘탈중심화(decentering)’ 혹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Piaget는 자기중심성을 넘어선 성숙이 모든 도덕성의 시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추병완, 1999).

Kohlberg(1958)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0세, 13세, 16세의 소년들의 반응을 토대로 Piaget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교화하고 확장시켰다. 딜레마를 보고 소년들

은 두 가지, 즉 규칙, 법, 권위적 인물에 복종하는 것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규칙과 명령을 어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ohlberg는 Piaget가 이론 아동기의 도덕성 관찰 및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약 20년간 고유한 인터뷰를 실시해 왔던 Kohlberg(1958)는 도덕적 발달이 주로 도덕적 추론을 기초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하여 Piaget가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을 양분한 것은 도덕성 발달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딜레마들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대답에 근거를 두고 Kohlberg는 각각 두 단계로 특징지어지는 세 수준 도덕성 발달 형태를 제시했다. 세 수준이란, 상벌 등에 의해 습관화된 행동을 하는 원시적인 외적 처벌의 수준(전인습적 수준)으로부터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조건 지키고자 하는 복종지향의 수준(인습적 수준)을 거쳐 선의 근본을 알고 여기에 충실하려는 도덕성이 내적으로 유발되어지는 최고의 수준(후인습적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전인습 수준에서는 유아의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권위에 따라 도덕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수준에서는 1단계인 처벌과 복종지향적 단계와 2단계인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물리적 결과가 그 사람에게 주는 의미나 가치에는 상관 없이 행동의 선악의 결과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구별할 수 없고 처벌을 피하거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한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단계이다. 옳은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공정성, 상호성, 호혜성, 평등한 공유 등의 요소가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제나 물리적 실용적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시기의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에 근거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자라 할 수 있다.

인습적 수준에서는 가족 사회 국가의 기대를 유지하는 자체가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가치롭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지지하며 집단이나 그 성원들에게 동일시하고 충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수준에서는 3단계인 대인간 조화 또는 착한 소년·소녀 지향 단계와 4단계인 법과 질서 지향 단계로 구분된다.

3단계는 타인을 돕는 일 또는 기쁘게 하는 일과 같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

해 착한 행동을 하고 타인의 반응을 도덕성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준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인정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규제를 수용하고 의도에 의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4단계는 옳고 그른 행동을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권위를 존중하며 주어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집단의 권위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 수준에서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의 단계로 옳은 행위란 일반적인 개인권리, 전체 사회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권리란 합법적·민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 또는 의견에 문제이다.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6단계는 양심적인 판단이 도덕성 원리의 기초를 이루고 양심의 내적 지시에 존중받기 원한다. 이 단계의 도덕성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때로는 대다수가 수용하는 사회적 질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가하는 처벌을 사회가 가하는 처벌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Kohlberg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세 수준에서 각각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Piaget의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유아기의 성숙 수준의 단계를 1~2단계에 해당 된다고 보았다. Kohlberg의 도덕적 수준들도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라고 보고 Kohlberg 고유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출판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즉 모델링·인지적 갈등·또래관계·조망수용의 기회 등에 초점을 두고 후속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유아들의 현재 확립된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도덕적 사고를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도덕성 발달 수준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였다(박찬옥, 1994). Walker와 Taylor(1991b)에 의하면 유아들의 인지적 수준에서 약간 상 위하는 도덕적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추론 능력의 증진 된다고 보았다.

도덕성 발달은 개인적인 판단 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사고방식을 직접 가르칠 수 없으므로 교육활동을 통해 유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전래동화를 활용하여 갈등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동극, 그리기 및 쓰기, 그룹게임, 조형활동을 해봄으로써 반성성(reflective) 사고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2. 유아 도덕교육의 내용과 통합적 방법

1) 유아 도덕교육의 내용

도덕교육은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오랫동안 그 필요성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도덕교육의 내용은 많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Kohlberg(1972)와 Selman(1974)는 규칙, 공평, 약속 지키기, 정직, 소유권을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보았다. Benett(1993)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화, 성경이야기, 전래동화, 동시와 같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교훈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여 ‘미덕의 책(Book of Virtue)’을 내놓았다. 그는 이 책에서 정직, 용기, 인내, 충성, 우정, 동정심, 노동, 자기수양, 책임감, 믿음의 10가지 영역을 가치와 도덕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Lamme과 Krogh 및 Yachmetz(1992)는 ‘문학적 접근에 의거한 도덕교육’에서 자기존중, 책임, 나누기, 진실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생태계의 보호, 근면, 참을성, 인내, 무조건적인 사랑의 9가지 도덕교육의 내용을 주장하였다(이정수, 2003). 이 9가지를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채택한 이유는 첫째, 구성주의 교육원리가 유아로 하여금 “다른 사람 존중”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가치 영역이 유아의 발달적 수준에서 가장 접근하기에 적합한 도덕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연구와 학자들에 의해 유아의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필요한 도덕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4)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인간교육 또는 인간성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 경애, 공동체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유교 사상을 토대로 한 ‘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보며, 도덕교육을 의무나 규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 즉 도덕적 사고의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활동으로 보기로 한다(정갑순, 2000, 재인용).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18개의 사회적 덕목으로써 인내, 타인존중, 질서, 주체의식, 청결, 전통윤리 존중, 협동, 공중도덕, 절제, 물질만능 배제, 양보, 정직, 예절, 긍정적 사고, 생명존중, 타인신뢰, 책임, 근면을 추출하여 유아의 도덕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1998)은 유치원 교육목표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개인·가정·집단생활 영역에서의 예절·질서·절제·협동·공경 등의 습관화를 위한 외적인 요소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면적 요소를 강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덕성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많은 도덕적 행동 특성인 '덕목'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덕목들은 각기 독특한 정의를 갖고 있으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은 실제로 한 가지 덕목만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종합적 성격을 갖게 된다(안연경,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점을 종합하여 유아의 발달수준과 우리나라의 제6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제주 전래동화와 관련성이 깊은 예절, 질서, 절제를 도덕교육 내용의 덕목으로 선정하였다.

2) 유아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방법

유아의 도덕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론에 입각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덕목들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도덕교육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할 때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의

토의학습은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학습의 일종으로 학급 내에서 학습자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비판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는 학습방법이다. 김명희(2000)는 전래동화에 나타난 도덕적 갈등상황의 토의활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수가 많이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유아들에게 있어서의 토의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생각하면서 문제점 안에서 여러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관점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들이 동화책을 읽는 중이거나 읽은 후에 논리적 사고, 조망 수용, 갈등, 역할 놀이, 감정이입을 통해 유아들의 도덕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토의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 도모에 가장 중요한 교수 방식이 될 수 있다.

(2) 동극

동극은 교사가 동화를 들려주고 난 후에 그 동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각자 맡고 대사와 행동, 내용을 중심으로 극화해 보는 활동을 말한다. 극화에 참여한 유아들 모두는 연기자(player), 관객(audience), 연출자(playmaker)중 어느 한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클라이막스, 특징, 빠른 결말, 자연적인 대화로 구성된 동화의 내용의 이야기를 유아들이 즉흥적으로 동극의 내용을 만들며 역할을 동일시하게 된다. 또한 유아 자신이 극중 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과정을 통해 탈중심화를 도울 수 있고 여러 유아가 함께 동화의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기대를 한다.

(3) 그룹게임

그룹게임은 두 명 이상의 유아가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달성되어야 할 예정된 클라이막스(목표)가 있으며, 규칙에 따라 나와 상대방이 상호의존적이면서 상대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놀이를 말한다. 유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이’는 의도적이고 목적을 추구하는 행동이기보다는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필연적 행동이다. 그룹활동 내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서 게임을 좀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특히 그룹게임은 작은 사회로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여 게임을 하는 동안 유아는 차례를 지키며 규칙을 따르는 연습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이 민주 생활의 연습인 것이다.

(4) 그리기와 쓰기

그리기와 쓰기는 유아들의 토의활동 과정을 통해서 회상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목적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한 가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문자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유아들은 쓰기활동을 하고, 문자를 통해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활동방법에서 구두적 표현(토의)과 그림을 그리거나 쓰기를 통한 언어 표현 방법을 다르다. 쓰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도 그리기 표현력을 통해 월등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그리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도 쓰기표현을 통해 월등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기와 쓰기 이 두 가지의 어떤 경우이든지 유아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의 유용한 교수전략 방법 중에 하나이다.

(5) 조형활동

조형활동이란 물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 색채, 재질감, 운동감, 입체감, 양감 등 다양한 표현요소를 통하여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나타내는 예술에 한 분야이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미술활동을 조형활동으로 지칭하고 있다. 유아의 조형활동은 평면활동과 입체활동으로 분류된다. 평면활동은 그리기와 찢어 붙이기, 색칠하기 등이 포함되며 입체활동은 접기, 조각 만들기, 장식품 만들기, 콜라주, 그 외의 다양한 2, 3차원의 공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형활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표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신체·사회성·정서·창의성 발달 등 유아의 전인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교육활동은 유아의 도덕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론에 입각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덕목들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과 가치

1)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

전래동화는 민중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인 서사 문학으로서 정착된 소박한 생활 속의 동화이다. 이러한 전래동화는 이야기를 만든 그 시대의 민족의 꿈과 생활을 표현하여 민족적인 감정을 복돋아 준다(장혜순, 1997). 또한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어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함은 물론 한국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풍속·습관·생활·사상·신앙 등이 녹아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전래동화의 내용들은 도덕적·교육적·심리적으로 우리의 정서와 가치관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제주도의 전

래동화를 논의함에 있어 구전자료는 많으나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자료 대해서 실제로 연구한 자료들은 많지 않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연구 인력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구전자료에 나타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제주 전래동화 역시 일반적인 전래동화가 갖는 모험과 환상, 흥미로운 스토리로 전개되어 있어서 이상한 세계의 철저한 드라마성, 마음을 뛰게 하는 사건, 간결, 단순 등을 구비하고 있어 어린이의 상상력을 만족시킨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상상력이라든지 정서순화, 문화전달 및 올바른 인생의 암시를 주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 가운데 장영주(1992)는 ‘제주도 전래동화의 제3대 정신’이라는 연구에서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긴 이야기, 장수 설화, 창조물에 대한 것이 제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동화와 권선징악의 내용,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장물의 이야기가 많고,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특징을 들고 있다. 또한 형태상 동화의 시작 부분에는 ‘옛날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만 끝 부분은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 전래동화의 특색은 정경묘사와 줄거리 중심, 판타지 위주의 우연의 일치, 천우신조, 불가사의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며 시간, 장소, 인물의 설정이 추상적이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관용적인 표현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이 대립과 반복 형식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적한 제주 전래동화의 특성은 한국 전래동화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주 전래동화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2) 제주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법

MacIntyre는 표현적인 전통적 도덕교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갈등 사태에 찾아볼 수 있는 도덕적 용기의 모델, 덕의 모델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쉽게 식별해 줄 수 있다. 또한 누구의 행동이 옳은 것이고 누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도덕적 표류를 막아줄 수 있다. 더불어 교훈적인 도덕적 이야기는 조상들의 가치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줌으로써 새 세대의 도

덕적 자원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조상들의 도덕적 삶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에 뿌리를 박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교사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준거점을 심어 줄 수 있으며, 감동과 감화를 통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인공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아 있는 형태로 배울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은 교훈적인 도덕적 이야기들을 통해 도덕적 판단이나 추론 과정에서 찾기 힘든 옳고 그름의 수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일례로 제주 전래동화 가운데 <가문장 아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가문장 아기는 어비대왕과 길대부인이 딸이 많다는 이유로 막내 딸을 옥함에 넣어 바다에 버린다. 가문장 아기는 남의 손에 길러진다. 세월이 흘러 어비대왕과 길대부인이 중병에 얻게 되어 가문장 아기는 자신의 부모인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언니들이 무서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삼신산으로 가서 부모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와 약수를 구하여 오게 된다. 약초와 약수를 먹게 된 부모님을 살게 되고 그 후로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이야기로 부모와 어른에 대한 예절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힘은 바로 구체적이며 명확한 모범적인 사례들의 힘(the force of exampl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오래오래 기억되어, 결정이나 판단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도덕적 나태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덕적 이야기들이 우리의 도덕적 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도덕교육적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박병기·추병완 저, 1996).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도덕적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제주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이금자(200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는 이 땅 제주 선인들의 삶과 그 행동 양식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그저 그런 우리의 이웃과 서민들이 나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인물들이 등장한다. 서민들의 애환이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끈뭇하게 살아가는 힘이 보인다. 현실과 가공의 세계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제주 민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졌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것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전래동화야말로 우리 제주인의 자화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제주인 다운 삶의 여러 방식과 정서적 가치를 함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흥미롭게 엮어져 있다. 전래동화의 단순 투명성은 어린이의 성격이 단순하고 정직하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또 그들은 직접적으로 주제를 깨닫고 싶어 한다는 속성에서 기인한다. 유아들을 흥미 속에서 제주 선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도덕성 및 교훈을 습득하게 한다.

셋째, 제주 전래동화는 주제가 명료하다. 제주 전래동화는 청자와 독자들에게 충·효·우애 등의 윤리적인 주제를 명료하게 가르쳐 준다. 특히 제주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인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 제주 전래동화는 유아들에게 고난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다.

넷째, 제주 전래동화는 환타지가 강하다. 다른 전래동화 역시 그러하듯이 제주 전래동화는 특히나 시대적 배경을 ‘옛날 옛적’ 등으로만 나타내고 지리적 배경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배경을 하고 있다. 물론, 천상, 천하, 용궁, 주천강, 주년국, 여산고을, 오동나라 등 환타지 에 의한 가상적인 세계가 지리적 배경을 함께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배경이 되는 것은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로가 마련되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인물들은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고 신과 혼인하거나 동문수학을 하는 등 인간과 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제주 전래동화에서 환타지의 광활함은 사고의 깊이가 얕은 아이들에게 무궁한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전래동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요약하면, 제주 전래동화는 권선징악의 내용, 자연물,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 정경 묘사와 즐거움 중심, 환타지 위주의 우연의 일치, 천우신조, 불가사의한 인간관계가 바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간, 장소, 인물 설정이 추상적이고 인과응보의 주제가 드러나며, 관용적 표현이 많고 사건진행에 대립과 반복의 형식이 많다. 제주 전래동화를 통하여 유아들은 선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고 인간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모방과 동일시로 정의감, 의지력, 자기 조절력, 책임감등 같은 많은 도덕적 안목이 함의된 가치들을 습득하게 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동화를 활용한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rogh와 Lamme(1985)은 4~5세 유아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4주 동안 ‘나누기’에 대한 갈등상황이 포함된 이야기를 가지고 8명의 유아에게 토의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대상 아동의 도덕적 판단 수준은 증가되었으며 또한 자발적인 토의 능력과 문학적 감상력,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 등이 증가하였다.

이혜란(1985)은 하위계층의 아동에게 동화를 이용하여 극화놀이와 역할놀이를 혼련시킨 결과 극화놀이 집단이 통제집단이나 역할놀이 집단보다 이야기 이해력과 상상적인 판단력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준(1992)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과 통제집단 12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동안 가설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Damon의 분배배정의 추론 면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분배정의 추론은 진보되었으나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차미화(2001)는 이야기의 갈등상황 토의활동은 유아의 자율적 행동변화에 있어서 의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토의에 참여한 유아들이 더 자율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에 따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토의의 효과가 크다는 것에 의의를 두나 도덕적 판단에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김윤자(2002)는 4~5세의 유아를 실험집단 16명과 통제집단 16명으로 나누어 4주 동안 주 2회 10분에 걸쳐서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고 역할놀이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 결과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유아의 도덕성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동화를 활용한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동화를 유아들에게 단순히 들려주고 토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에 따라 유아들을 지도하였을 때 그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한 H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개 반 유아 60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이 중 30명은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실험 집단이고, 나머지 30명은 일반 정규 유치원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통제 집단이다.

제주지역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프로그램 적용 전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검사

변인	집단구분	M(SD)	t값
도덕적 판단력	실험	1.18(.26)	1.691
	통제	1.08(.20)	
예절	실험	32.20(3.51)	.000
	통제	32.20(3.84)	
도덕적 행동	실험	28.90(3.54)	1.220
	통제	27.53(5.02)	
절제	실험	47.97(6.10)	-.698
	통제	49.10(6.49)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의 하위 영역인 예절, 질서, 절제의 사전검사 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2. 검사도구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는 Piaget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Hebble(1971)이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박경희(1995), 안영경(2001) 등의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Piaget(1975)의 실험에서 제시된 과실, 거짓말, 도둑질 등의 세 가지 도덕성 영역에 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의도와 결과 모두 각기 두 수준에 따라 좋은 의도-적은 손실, 좋은 의도-많은 손실, 나쁜 의도-적은 손실, 나쁜 의도-많은 손실의 4가지 사태로 나눈 것이다. 질문지의 내용을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질문을 취하는 방식으로 면담용 질문지의 문항 수는 도덕성 영역별(과실, 훔치기, 거짓말) 각각 3문항, 도덕성 척도별(좋은 의도-적은 손실, 좋은 의도-많은 손실, 나쁜 의도-적은 손실, 나쁜 의도-많은 손실) 4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나쁘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아주 많이 나쁘다’의 4점까지 네 단계로 평정한 후, 이것을 의도성 지수로 환산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였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지의 내용별 문항을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도덕적 판단력 검사지의 내용별 문항

(단위 : 문항)

도덕성척도 도덕성영역	좋은 의 도		나쁜 의 도		전 체
	적은 손실 (GL)	많은 손실 (GH)	적은 손실 (BL)	많은 손실 (BH)	
과 실	1	1	1	1	4
훔 치 기	1	1	1	1	4
거 짓 말	1	1	1	1	4
전 체	3	3	3	3	12

Hebble(1971)의 의도성 지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IJQ = \frac{\sum_{BL} + \sum_{BH} \times \sum_{BL} + \sum_{GL}}{\sum_{GL} + \sum_{GH} \quad \sum_{BH} + \sum_{GH}}$$

- ※ IJQ(Intention Judgement Quotient) : 의도성판단 지수
- GL(Good Motive-Low Result) : 좋은 의도- 적은 손실
- GH(Good Motive-High Result) : 좋은 의도-많은 손실
- BL(Bad Motive-Low Result) : 나쁜 의도- 적은 손실
- BH(Bad Motive-High Result) : 나쁜 의도- 많은 손실

위의 공식은 BL 점수의 총합과 BH 점수의 총합을 합하여 GL 점수의 총합과 GH 점수의 총합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과 BL 점수의 총합과 GL 점수의 총합을 합하여 BH 점수의 총합과 GH 점수의 총합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을 곱한 점수가 의도성 판단지수이다. 이 공식에 의하면 아동이 행동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의도와 결과의 비중이 똑같다면 그 지수의 값은 1이 된다. 그러나 의도를 더 많이 고려하면 값은 1보다 커지고 결과에 의해 판단하면 그 값이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Spearman-Brown 교정공식에 의해 산출된 기우반분 신뢰도가 .81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도덕적 행동 평정

제주 전래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교육평가원(1995)에서 개발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 중 질서, 예절, 절제의 덕목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각 덕목별 문항은 질서 12 문항, 예절 14문항, 절제 17문항으로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행동 점수는 각 덕목별로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의 5단계 척도에 대해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평가한다.

3) 통합적 도덕교육을 위한 제주 전래동화 선정

제주 전래동화는 183편의 이야기가 여러 책에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도 이야기 1·2」, 「힘센 종 막산이」, 「알동네 웃동네」, 「이어도 하르방」, 「오돌또기」, 「힘센 할망과 찌 많은 하르방」, 「재미있는 전설동화」, 「제주도 전래동화」 등에 수록되어 있는 183종이다. 5년 이상의 유치원 경력자 2명과 제주도 전래동화에 관심이 많은 아동문학가 1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진(2002)의 유아에게 적합한 구비설화의 7가지 선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6종을 선정하였는데,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 ② 유아들에게 이야기 내용이 흥미로운가?
- ③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서도 감동을 주는가?
- ④ 이야기 구성이 단순 명쾌한가?
- ⑤ 제주 선인들의 민족특성이나 제주 고유문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⑥ 좋은 심성과 희노애락 등의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가?
- ⑦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러한 선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통합적 도덕교육 적용을 위해 선정한 제주 전래동화의 내용과 덕목요소를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통합적 도덕교육 적용을 위한 제주 전래동화

주	제 목	내 용	핵심덕목
1	김녕 사굴	제주도 북제주군 김녕 마을에 ‘사굴’이라 부르는 큰 굴이 있다. 굴의 모양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고 그 길이도 매우 길다. 옛날 굴 안에는 큰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뱀은 밤마다 나와 온 마을의 가축들을 잡아먹고 마을 사람들이 일년	질서

		<p>동안 농사 지어 놓은 밭의 곡식들과 집안의 물건들을 망가 뜨려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뱀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힘이 세고 기어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 아무도 그 뱀을 잡지 못하였다. 특히 그 뱀은 자기에게 제사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가 나서 마을의 물건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뱀에게 제사와 제물을 바칠 날이 다가올 무렵 서련이라는 관관이 제주도로 부임해서 오게 되었다. 그는 뱀을 잡기 위해 굴 속으로 유인하여 굴속에 숯과 화약을 넣어 불을 피우고 뱀을 잡는다. 제주도사는 관관에게 제주성으로 가라고 하면서 절대 뒤를 보지 말 것을 당부의 말을 한다. 관관이 제주성에 이르렀을 때 포졸이 피비가 온다고 소리쳤다. 관관은 피리라고 외치는 소리에 무심코 뒤를 보게 되었고 끝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뱀을 잡아준 관관의 고마운 마음을 기리며 사굴 입구에 비석을 세웠다.</p>	
2	구슬할망	<p>옛날 조천읍 신촌리 큰물머리에 김사공이 살고 있었다. 김사공은 제주에서 나는 특산품을 임금님께 받치기 위해 서울을 자주 왕래하였다. 어느 해 김사공이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하룻밤 머무를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어디에선가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허정승의 딸이었다. 허정승의 딸은 집안에서 자신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렀다.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도 여기 저기 벗어놓기도 하고 자신의 물건도 제자리에 놓는 법이 없을 정도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 종들을 시켜 김사공이 머물 곳을 찾고 있는 그 곳에 버려놓고 간 것이었다. 허정승의 딸은 갈 곳이 없다며 울</p>	질서

		<p>면서 김사공을 붙잡았다. 김사공은 허정승의 딸을 자신의 도포자락에 숨겨놓고 제주에 들어갔다. 몰래 제주에 데려가다 관원에게 들키면 엄벌이 내려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 허정승의 딸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 지냈다. 세월이 흘러 열여덟살이 되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일이 험하다는 제주 해녀의 일을 하게 된다. 해녀 일을 하면서 얻은 것으로 큰 부자가 되고 김사공과 결혼을 하게 된다.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에게 이 많은 재산은 하늘이 내려 주신 뜻이니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자고 한다. 진상을 받은 임금은 그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김사공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고 허정승의 딸에게는 칠색구슬을 선물하게 된다. 그래서 그 뒤로 구술할망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p>	
3	신춘효부	<p>신춘의 김씨 댁에 남편을 여의고 일흔살이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고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를 마을에서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암행어사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육지 손님으로 가장해서 김씨댁에 가게 되었다. 며느리는 암행어사를 모르고 사랑방에 모시게 되었고, 암행어사는 며느리의 행동을 문틈으로 여겨 보았다.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참기름을 짜는 것이었다. 뜨거운 참기름을 식히려고 시어머니 방 앞에 올려놓고 들어갔다. 새벽에 일어난 시어머니는 손님이 왔는데 보기 싫은 요강을 갖다 놓았다며 참기름을 버렸다. 시어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며느리가 화를 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자기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치우지 못했다며 사과</p>	예절

		를 하는 것이었다. 암행어사는 이런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보고 서울로 올라가 임금님께 아뢰어 큰상을 내리게 하였다.	
4	수월봉과 녹고물	<p>옛날 고산리 바닷가의 자구내라는 마을에 한 어머니와 ‘수월’이라는 딸과 ‘녹고’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에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고 만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몸을 돌보지 못하고 병이 든 것이었다. 수월이와 녹고는 몸에 좋다는 약은 물론 전복죽도 쑤어드리는 등 온갖 애를 다 썼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다. 어느날 수월이네 집 옆을 지나던 스님이 수월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다. 수월이는 어머니의 병환을 이야기하였다. 스님이 어머니를 보고 맥을 짚어보더니 어머니 병을 낫게 하는 약초 백가지를 알려준다. 남매는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러 다녔다. 마지막 오갈피 약초가 남은 것이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다가 높은 바위 절벽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남매는 마을에 있는 절벽으로 가게 된다. 드디어 오갈피를 찾은 것이다. 오갈피를 캐러 남매가 절벽으로 올라가 수월이는 녹고의 손을 잡고 손을 뻗어 오갈피를 캐다. 둘이 너무 신난 사이에 녹고가 그만 손에 힘을 잃고 손을 놓고 말았다. 수월이는 한 송이 꽃처럼 떨어졌다. 녹고는 죽은 누나를 보면 영영 울었다. 녹고가 흘린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바위틈의 샘물로 솟아올라 지금의 수월봉이 만들어졌다.</p>	예절
5	고삭불 장사	<p>한림읍 상명리에 고삭불이라는 힘센 양반이 있었는데 그의 처가는 한경면 두모리였다. 장모는 사위에게 출 벨 일꾼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자 고삭불은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장모에게 점심이나 차려오라고 한다.</p>	절제

		<p>장모는 열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점심을 가지고 출 밭으로 갔지만 고삭불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장모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리고 고삭불은 준비해 온 많은 양의 점심을 모두 먹고 또 잠을 자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튿날 날이 밝자 장인이 밭에 가보니 출이다 베어져 있는 것이었다. 워낙 힘이 센 고삭불이라 그 많은 양의 일을 금방 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고삭불이 처갓집 대문 입구에 출을 쌓아 놓은 것이다. 밥을 주면 치워준다는 것이었다. 장모가 밥을 챙겨주자 치워주고 자기는 소라도 먹어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하자 또 준비해 주고 했다. 어느해 흉년이 들자 장인이 고생하는 딸을 위해 고삭불을 불러 쌀을 주었다. 그때는 어두운 저녁이었다. 장인이 도둑을 만나면 큰일나니 날이 밝으면 가라고 하지만 고삭불은 끝내 힘이 세다고 자랑하면서 길을 떠나게 된다.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지만 다행히도 도둑들이 힘센 고삭불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갔다.</p>	
6	고종달 이야기	<p>옛날 제주에는 한라산의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물 때문에 힘센 장사가 많다고 사람들이 믿었다. 중국 임금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땅 기운을 잘 보는 중국의 풍수지리가 고종달을 제주로 보내었다. 고종달이 도착한 곳은 제주의 '종달'이라는 마을이었으며, 제주도의 산과 물을 찾아다니며 좋은 기운이 나는 곳을 쇠꼬챙이로 다 막아버렸다. 어느날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장새미'란 이름을 가진 샘물의 신이라는 처녀가 농부에게 다가와 중국의 고종달이 제주의 기운을 없애려고 제주의 물들을 다 막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미리 알</p>	절제

		<p>고 있어서 도망가는데, 고종달이 거의 다 왔으며 농부에게 숨겨 달라고 한다. 방금 농부가 떠 온 못그릇의 물 속으로 그 처녀는 연기처럼 들어가고 농부는 자신이 입었던 비옷으로 감추게 된다. 드디어 고종달이 왔다. 고종달은 점을 치고 난 뒤 이 근처에 ‘지장매시’가 있다고 확신하고 농부에게 지장새미가 있는 곳을 말해 달라고 한다. 농부는 처음 듣는 것이라며 시치미를 뚝다. 고종달은 제주의 물이 너무 많아 막느라 쉬지도 못하고 배가 많이 고파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다. 결국 고종달은 지장새미를 찾지 못하고 하던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종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소문으로만 고종달의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다.</p>
--	--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를 담임교사 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담임교사 훈련

각 담임 교사가 평소 유치원 생활에서 관찰하였던 점을 중심으로 도덕적 행동 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05년 5월 9일 ~ 5월 13일까지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도덕 교육 활동방법(토의, 동극, 그룹게임, 그리기 및 쓰기, 조형활동) 과정을 훈련하였다.

2) 사전검사

①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들에게 2005년 5월 9일 ~ 5월 13일까

지 5일 동안 연구자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면접으로 실시하였다.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허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검사자와 연구대상 유아가 나란히 앉아 긴장이 해소되었을 때 이야기를 실시하였으며, 유아가 긴장하지 않도록 대답을 존중하며 유아의 대답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유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씩 들려준 후 반문하였다. 한 유아당 소요시간은 10분 ~ 15분 정도였다.

② 유아의 도덕적 행동 평가

연구대상 유아들은 각 담임 교사가 평소 유치원 생활에서 관찰했던 점을 중심으로 2005년 5월 16일 ~ 5월 20일까지 5일동안 도덕적 행동을 사전검사 실시하였다.

검사자인 각 담임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장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사소지자이다.

3) 실험처치

본 실험은 2005년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주 동안 3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에게 실시 할 통합적 도덕교육은 동화에 나타나는 덕목과 도덕적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세우고 각 영역간의 교과목 통합 및 유아의 경험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의 각 영역인 토의, 동극, 그룹게임, 그리기 및 쓰기, 조형활동 등 5가지 영역은 1주에 동화 한편을 들려주고 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연구들에서 입증된 토의, 동극, 그룹게임, 그리기 및 쓰기, 조형활동 등의 활동들을 참고로 하여 계획한 활동 프로그램을 한 영역당 30 ~ 40분 동안 진행하였다.

실험 장소는 교실이며 그룹게임 등과 같은 동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는 유희실을 이용하였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안의 예는 <표 III-4>와 <표 III-5>에 제시하였다.

<표 III-4> 실험처치 프로그램

주	실험주간	동화제목	요일	활동명	활동방법	활동내용
1	5월 23일 ~ 5월 27일	김녕 사굴	월	· 내가 만약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토의	동화를 듣고 내가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
			화	· 등장인물(뱀, 마을사람, 판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꾸미기	그리기 및 쓰기	뱀, 마을사람, 판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꾸미기
			수	· 등장인물 가면 만들기	조형활동	종이 가방에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뱀, 마을사람, 판관 얼굴 꾸미기
			목	· 뱀과 마을사람, 판관 되어 보기	동극	뱀, 마을사람, 판관 역할 놀이
			금	· 규칙을 지키며 장애물 건너기	그룹게임	두 팀으로 나누어 달리다가 그물 밑을 기어 반환점을 돌아오기
2	5월 30일 ~ 6월 3일	구슬할망	월	· 구슬할망 동화를 듣고 나서	토의	동화를 듣고 난 후 이야기에 대한 토의하는 활동
			화	· 질서와 관련된 사례 찾기	그리기 및 쓰기	집과 유치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질서에 대한 사례 찾기
			수	· 물건 정리함 만들기	조형활동	우유곽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물건 정리함 만들기

			목	· 구슬할망 되 어보기	동극	구슬할망 역할 놀이
			금	· 서로 정한 약속을 지키며 구슬치기하기	그룹게임	두 팀으로 나누 어 구슬치기 할 때의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구슬치기
3	6월 6일 ~ 6월 10일	신춘효부	월	· 부모님을 위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토의	가정과 유치원에 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토의하는 활 동
			화	· 부모님께 편 지쓰기	그리기 및 쓰기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편지 쓰기
			수	· 약초 모으기	조형활동	수집한 약초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표현 해 보기
			목	· 신춘효부	동극	신춘효부 역할 놀이
			금	· 빨래 말리기	그룹게임	두 팀으로 나누 어 제시된 지시에 따라 빨래 널기
4	6월 13일 ~ 6월 17일	수월봉과 녹고물	월	· 부모님의 병 환에 시중들기	토의	부모님께서 아프 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 한 토의하는 활동
			화	· 후속 이야기 짓기	그리기 및 쓰기	동화의 뒷 이야 기 꾸미기
			수	· 찰흙을 이용 한 수월봉 만 들기	조형활동	찰흙을 이용하여 수월봉을 만들어 보기
			목	· 수월봉과 녹 고물	동극	수월봉과 녹고물 역할 놀이

			금	· 내가 먼저 즐게	그룹게임	게임판을 이용하여 도착점인 수월봉까지 가는 중간에 쉬어가기에서 친구에게 ‘내가 먼저 즐게’ 라고 말로 표현하기
5	6월 20일 ~ 6월 24일	고삭불 장사	월	· 힘은 언제 사용할까?	토의	힘은 어떻게 생기며 힘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하는 활동
			화	· 고삭불 장사 에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리기 및 쓰기	고삭불 장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표현하기
			수	· 출발 디오라 마	조형활동	준비된 상자 안에 출발 꾸미기
			목	· 고삭불 장사 되어보기	동극	고삭불 장사 역할 놀이
			금	· 징검다리 건 너는 규칙 지 키기	그룹게임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명은 징검다리를 건너고 다른 한 명은 징검다리를 이어주는 활동
6	6월 27일 ~ 7월 1일	고종달이 야기	월	· 고종달	토의	동화를 듣고 난 후 느낌에 대한 토의하는 활동
			화	· 고종달에 게 편지쓰기	그리기 및 쓰기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꾸미기
			수	· 머리띠 만들 기	조형활동	고종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머리띠 만들기
			목	· 고종달 되어 보기	동극	고종달 역할놀이

			금	· 매트 넘어뜨리기	그룹게임	세울 수 있는 매트를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는 게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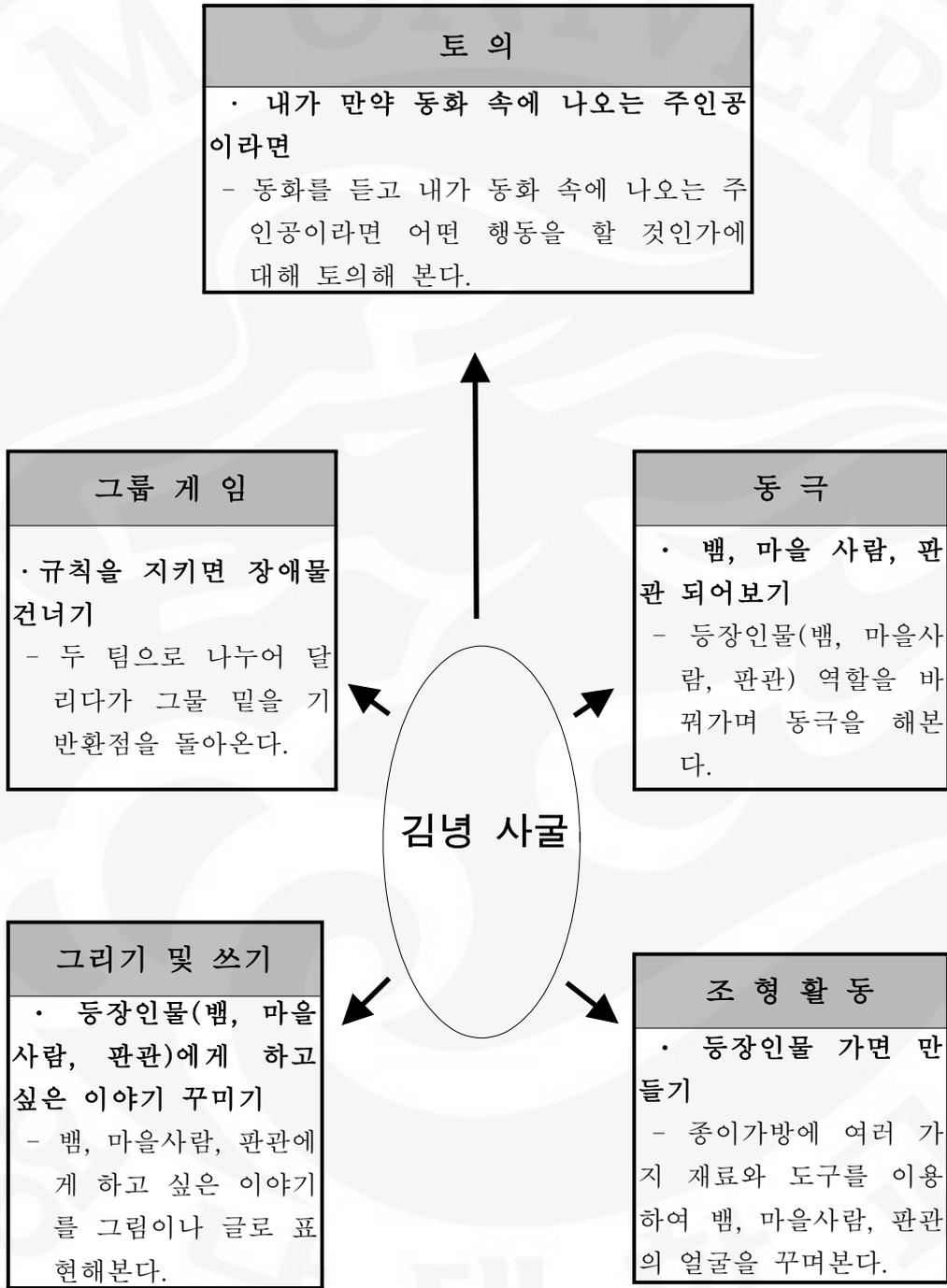
4) 사후검사

본 연구의 사후검사는 실험기간이 끝난 후 2005년 7월 4일 ~ 7월 8일까지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점수의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사후검사의 집단 간 비교는 사전검사 값을 공변인으로 두고 집단간의 사후검사 값을 비교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Ⅲ-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안 예
 동화 : 김녕 사굴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점수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IV-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1>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집단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검사	실험집단(n=30)		통제집단(n=30)	
		M	SD	M	SD
도덕적 판단력	사전	1.18	.26	1.08	.20
	사후	1.66	.35	1.20	.18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반해 실험집단의 경우 도덕적 판단력에 있어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검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 적용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집단간(실험, 통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IV-2>와 같다.

<표 IV-2> 집단에 따른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공변량분석표

변인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도덕적 판단력	집단간	2.93	1	2.93	.30**
	공변인	.20	1	.20	37.04**
	집단내	4.50	57	.08	
	전 체	7.72	59		

** $p < .01$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적용한 결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p < .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 적용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쓰여진 종속변인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덕적 판단력에서 공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변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후 조정된 사후 검사의 평균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공변량 분석에 의해 조정된 도덕적 판단력의 사후검사 평균의 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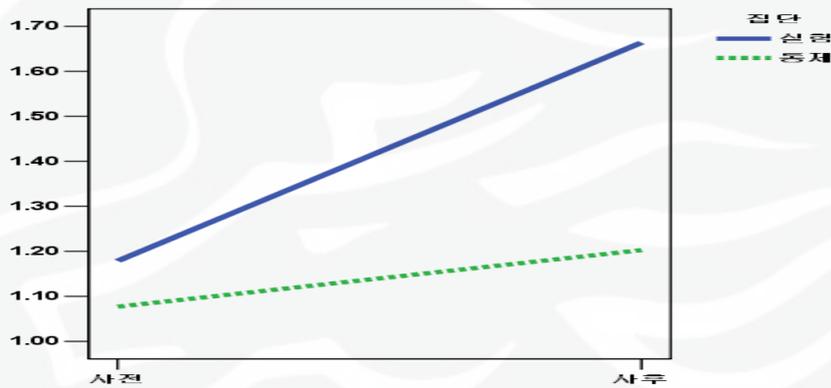
변인	집단 구분	조정된 평균	표준 오차	F값
도덕적 판단력	실험	1.66	.05	.30**
	통제	1.21	.05	

** $p < .01$

유아에게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도덕적 판단력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덕적 판단력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덕적 판단력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도덕적 판단력 점수 변화량

2.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유아의 도덕적 행동 점수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IV-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4> 도덕적 행동에 대한 집단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구분	시기	실험집단(n=30)		통제집단(n=30)	
			M	SD	M	SD
도덕적 행동	예절	사전	32.20	3.51	32.20	3.84
		사후	46.20	3.37	38.37	4.12
	질서	사전	28.90	3.54	27.53	5.02
		사후	42.07	3.84	34.27	6.55
	절제	사전	47.97	6.10	49.10	6.48
		사후	67.50	4.48	57.53	6.44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반해 실험집단의 경우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예절, 질서, 절제 모두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집단간(실험, 통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집단에 따른 도덕적 행동에 대한 공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예절	집단간	847.02	1	874.02	112.37**
	공변인	376.83	1	376.83	48.45**
	집단내	443.34	57	7.79	
	전 체	1694.18	60		
질서	집단간	663.67	1	663.67	37.37**
	공변인	661.43	1	661.43	37.24**
	집단내	1012.31	57	17.76	
	전 체	2586.33	60		
절제	집단간	1691.68	1	1691.68	105.11**
	공변인	869.59	1	869.59	54.03**
	집단내	917.38	57		
	전 체	3276.98	60		

** $p<.01$

<표 IV-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적용한 결과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예절($p<.01$), 질서($p<.01$), 절제($p<.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예절, 질서, 절제에서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쓰여진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공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변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후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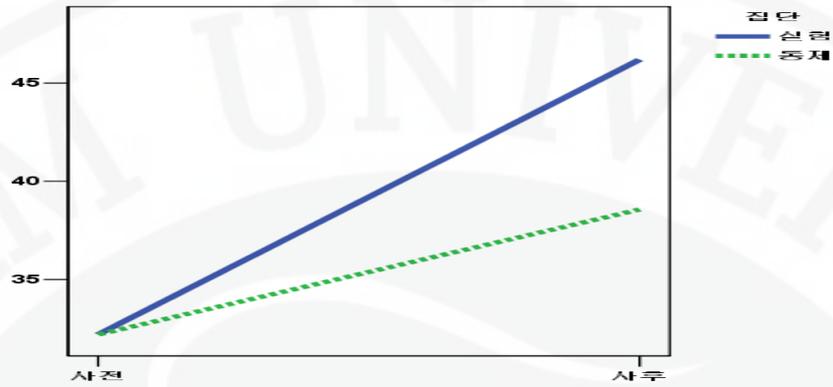
<표 IV-6> 공변량 분석에 의해 조정된 도덕적 행동의 사후검사 평균의 집단 비교

변인	집단 구분	조정된 평균	표준 오차	F값
예절	실험	42.07	.99	112.37**
	통제	34.27	.99	
질서	실험	41.54	.77	37.37**
	통제	34.80	.77	
절제	실험	67.85	.73	105.11**
	통제	57.19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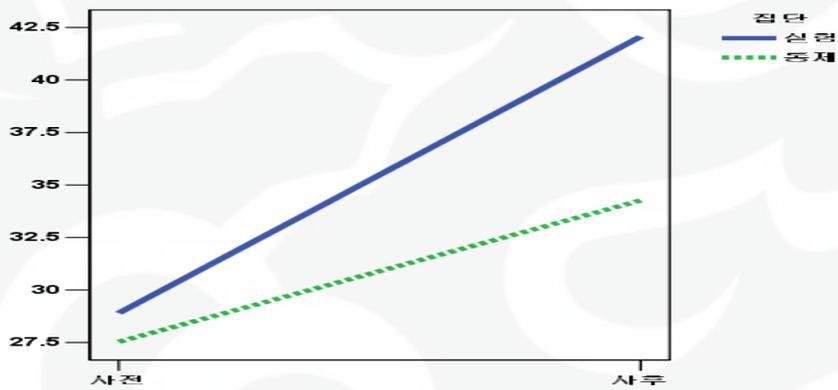
** $p < .01$

유아들에게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 즉, 예절($p < .01$), 질서($p < .01$), 절제($p < .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예절, 질서, 절제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제주 전래동화의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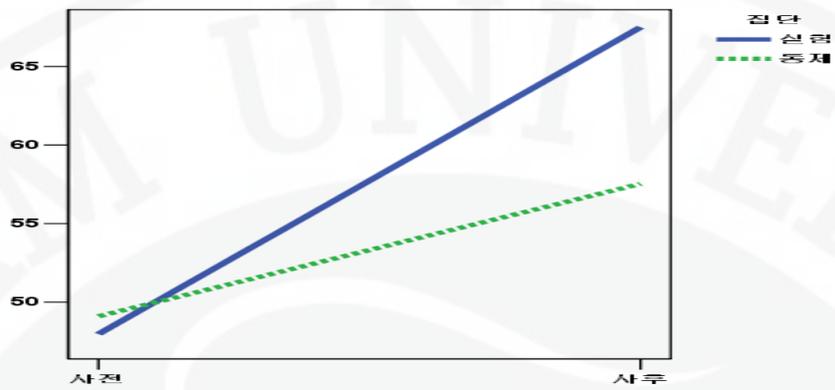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덕적 행동의 하위영역 즉, 예절, 질서, 절제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2]에서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예절 항목의 점수 변화량



[그림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질서 항목의 점수 변화량



[그림 IV-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별 절제 항목의 점수 변화량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 5세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30명의 통제집단과 30명의 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검사에서는 Hubble(1971)의 유아 도덕적 판단력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도덕적 판단력 검사를 실시하고, 국립교육연구원(1995)에서 개발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6주간 30회에 걸쳐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은 토의·동극·그룹게임·그리기 및 쓰기·조형활동의 5가지 통합활동이다. 통제집단에게는 일반 정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6주의 실험처치가 끝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일반 정규 유치원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7.04, p<.01$). 이러한 결과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시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유아들보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상황이 제시 되어있는 제주 전래동화를 도덕교육활동인 토의, 동극, 그룹게임, 그리기 및 쓰기, 조형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반복적인 경험하면서 되풀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켜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갈등과 위기가 인간과 자연에게 무엇이 보편타당한 가치인가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 시킨다고 제시되어 있는 불교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을 높여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정도진, 2003)와 도덕적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을 높여 준다고 밝힌 선행 연구(안연경,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갈등 상황에 대한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힌 선행연구(Jensen & Rytting, 1972) 결과와 구성주의적 그룹게임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박성희, 1998)에서도 이미 토의나 그룹게임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DeVries와 Zan(1994)은 아동문학으로서의 동화가 문학작품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동일시하는 경험과 느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의 개인적 가치를 나름대로 구성하도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행위이고, 보편적 규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 능력인 도덕적 판단력을 증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갈등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동화를 들려주고 난 후 토의 및 구체적 경험을 하도록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은 등장인물 혹은 주변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지각하는지에 대한 감정이입과 조망수용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되므로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발달시킨다.

이상금과 정영례(1981)는 동화 속에는 갈등 상황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아 동화를 들으면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방법을 스스로 설정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하게 되고 동시에 새로운 해결방법 및 탐색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동화는 상상적 체험을 통해 타인의 삶까지 배우게 되어 단순히 구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이 보이는 행동의 판단과정, 가치관, 태도까지 습득하게 된다. 또한 김학선(1986)은 불안, 초조, 슬픔, 분노, 적개심과 같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요소들이 동화 속에 함축되어 나타나 있으며 유아들은 성장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동화가 가장 좋은 치료의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은 유아에게 문제상황에서 도덕적 기준과 태도를 발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사태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간접적 경험 활동으로 모방하는 가운데 자신의 도덕적 사고를 개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험을 하기에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일반 정규 유치원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 유아들 간의 도덕적 행동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도덕적 행동은 하위 영역인 질서, 예절, 절제의 발달 측면을 보았는데 세 영역 발달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예절의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점수(M=46.20)는

통제집단(M=38.57)의 유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서에서도 실험집단의 점수(M=42.07)는 통제집단(M=34.27)의 유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절제도 실험집단의 점수(M=67.50)가 통제집단(M=57.53)의 유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도덕적 행동의 하위 영역인 예절, 질서, 절제의 발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세 영역의 발달 가운데서도 절제가 발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 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도덕교육활동이 통합적으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은정, 1999)와 일치한다.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 즉 제주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난 후 이야기 속의 갈등상황이나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토의해 보고, 동화 속 이야기를 극화하며, 그 사례를 찾아보고 편지쓰기, 후속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유아의 도덕적 행동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이 서로 토의하고 동극, 그림그리기 및 쓰기, 그룹게임 활동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표현해 보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유아의 듣기 능력, 집중력, 이해력, 상상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예자(1999)는 유아들이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동극 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며 타인의 심정이나 행동을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이돈희(1990)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 실체는 한 가지 덕목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덕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종합적인 성격을 갖기에 유아 도덕교육에 있어 다양한 덕목을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 교수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이 증진된다고 한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토의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적 동극활동을 하고 구성주의적 그룹게임, 그림그리기 및 쓰기 등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함께 도덕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유아들이 제주 전래동화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며, 동극, 그림그리기 및 쓰기, 그룹게임 활동 등 다양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을 함께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왔음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이 만5세 유아의 도덕성, 즉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활동 방법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만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쳤으며, 도덕성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은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 활동의 단기적 효과만을 밝혔기에 실험 연구 기간을 장기간 두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만 5세의 단일 연령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계층과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전래동화를 활용하였지만, 타지역의 전래동화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 전래동화 외에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교육평가원(1995). **유치원교육평가연구**. 서울 : 국립교육평가원.
-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2000). **재미있는 전설동화**. 교육부지정 시범유치원 일반화 자료. 대구 : 고산초등학교.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 권정숙(1986). 동화교재에 나타난 도덕성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2000). 전래동화에 나타난 도덕적 갈등상황의 토의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희·허혜경(1999). **유아발달**.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영기(1990). **알동네 웃동네**. 제주 : 영주문학사.
- 김윤자(2002). 성경 이야기를 통한 역할놀이가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준(1992). 가설적 갈등상황의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추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학석(1986). **아동문학**. 서울 : 교문사
- 남궁달화(2003). **도덕성 요소와 도덕교육**. 서울 : 학지사.
- 박경희(1995).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과 종교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희(1998). 구성주의적 그룹게임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병기·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경기도 : 인간사랑.
- 박재형(1992). **제주도 전래동화**. 서울 : 대교출판사.
- 박재형(1997). 제주전래동화연구-제주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옥(1994). 유치원 도덕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유아교육연구** 14(1), 51-73
- 손춘익(1987). **힘센 할망과 꾀 많은 하르방**. 제주 : 현암사.
- 송은정(1999). 기본생활교육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준거 판단 및 도덕적 위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아동문학협회(1990). **힘센 종 막산이**. 제주 : 영주문학사.

- 안연경(2001).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오예자(1999). 동극과 역할놀이가 유아 도덕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혜숙(2001). **동화를 통한 도덕교육 활용집**. 서울 : 보육사
- 이금자(2003). 제주전래동화 이야기 자료를 활용한 덕교육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돈희(1990). 유아기 도덕교육의 중요성. **인간발달연구**, 18(1), 1-14
- 이상금·정영례(1981). **유아문학론**. 서울 : 교문사
- 이원영·박찬옥·노영희(1993). 유아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 유아교육연구회**, 13(3), 34-42.
- 이정수(2003). 동화를 이용한 ‘다시 이야기 해보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순(2003).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이 어린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란(1985). 동화내용에 따른 극놀이 및 사회 극놀이가 유아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병립(1982). **기초 심리학**. 서울 : 법문사
- 장영주(1992). 제주전래동화의 제3대 정신. **제주문학** 22호.
- 장혜순(1997). **아동문학론**. 서울 : 창지사.
- 정갑순(2000). 도덕이야기 전수 양상을 통한 유아기 도덕교육 탐색. **총신대 논문**, 19(2), 18-27
- 정대련(1990). 한국 전래동화의 윤리학적 탐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도진(2003). 불교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진(2001). 유아에게 적합한 구비설화의 특성 및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희영·최영행·장은희·홍은주·신현정(2000). **주제중심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서울 : 다음세대
- 차미화(2001). 동화의 갈등상황 토의활동이 유아의 자율적 행동 및 도덕판단력에 미

- 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병완(1999). **도덕발달이론**. 서울 : 백의.
- 최범서(1997). **오돌또기**. 서울 : 청솔.
- 허경철(1990).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홍옥순(1998). 도덕성 발달과 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교육연구**, 4(3), 31-38.
- 홍우철(1990). **이어도 하르방**. 제주 : 영주문학사.
- Benett, W. I.(1993). *The Book of Virtues: Treasury of Great Moral Stories*. New York : Simon & Schuster.
- DeVries, R & B. Zan(1994). *Moral classroom, moral childre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 Hebble, P. W.(1971). The Development of Elenmentary School Child's Judgment of Intent. *Child Development*, 42(6), 1203-1215.
- Jensen, L & Rytting, M.(1972). Effect of Information and Relatendness On Children's Belif in Immanent Justice. *Developmental Psychology*, 7, 93-97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moral thing and choice in the years ten to sixte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1962). Stage and sequence :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Davi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Research's Chicago ; Rand McNally.
- _____ (1972). Indoctrination versus relativity in value education. *Zygon*
- _____ (1975).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Scharf, P. (Ed.), *Readings in Moral Education*, Minneapolis, MN: Winston Press.
- Korgher, S. & Lemme, L.(1985). 'But what about sharing?' *Children's literature and moral development*. Young children
- MacIntyre(1984). *After Virture*. Notre Dame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iaget, J.(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775.

- _____ (1951).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Savage, MD : Littlefield Adams.
- _____ (1962).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D.A. Gos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 _____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 Selman, R.(1974). The relation of role-taking to thematic-fantasy in Culturally disadvantag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66(4), 623-630.
- Smetana, J. G.(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_____ (1966).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The Macmillian Company.
- _____ (197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Rotenberg, K.(1980). Cognitive processes and young children's use of intention and consequences information in moral judgments. *Merrill-palmer Quarterly*, 26, 359-370
- Walker, L. J., & Taylor, J. H.(1991b). Stage transitions in moral reasoning: A longitudinal study of developmental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30-337

<부록 1> 제주 전래동화 6편

김녕 사굴

제주도 북제주군 김녕 마을에 ‘사굴’이라 부르는 큰 굴이 있습니다.

굴 길이가 70m, 높이가 13m, 너비가 10m 정도이고 굴 모양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옛날 이 굴에 어마어마하게 큰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뱀은 밤마다 기어나와 온 마을의 가축들을 다 잡아먹고 일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놓은 곡식밭과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지나며 망쳐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보니 마을에는 제대로 놓여져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어지럽히는 뱀을 잡아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워낙 힘이 세고 지나다니는 속도가 매우 빨라 잡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뱀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때마다 열다섯 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뱀은 자기를 위해 제사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가 나서 굴 밖으로 나와 한해 동안 땀흘려 지어 놓은 농사를 하룻밤 사이에 망쳐 버리고 소와 말 같은 짐짐승을 다치는 대로 물어 죽였습니다.

선달이 지나고 새해 제삿날이 돌아오면 집집마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집 처녀가 올해의 제물이 될 것인지 가슴을 졸이며 있었습니다.

제관들이 제청에 모여 화살에 붉은 형겅을 메고 활을 쏘으면 화살이 날아가 꽂히는 집 처녀가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련이라는 새 관관이 제주도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언제나 옳은 일에 앞장서며 마음이 대쪽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련은 김녕 사굴 뱀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시 포졸에게 명령하여 창과 칼을 준비하도록 하고 솟과 화약도 넉넉히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당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 뱀이 굴 밖으로 나오자 포졸들과 관관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넓은 곳으로 유인하고 창과 칼을 던졌습니다. 뱀은 창과 칼을 피하려고 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하는 사이에 관관은 칼을 빼고 달려들어 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관관은 굴속에 솟을 넣고 화약에 불을 당겨 불태워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사가 관관에게 말하였습니다.

“관관님! 어서 제주성으로 가십시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관관은 서둘러 제주성으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거의 제주성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포졸이 관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관님! 피비가 옵니다.”

“무슨 비가, 피비가 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무심코 뒤를 돌아본 관관은 그 자리에 쓰러져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관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굴 입구에 비석을 세우고 마을의 질서와 평안을 어지럽히는 뱀을 잡기 위해 노력해 준 관관의 고마운 마음을 오래 오래 기렸습니다.

구슬할망

옛날 조천읍 신촌리 큰물머리에 김사공이 살고 있었다. 김사공은 제주에서는 나오는 버섯·전복·우뭇가사리·청각 등 임금님께 진상을 바치러 서울을 자주 왕래했다.

어느 해 김사공은 서울로 올라가 진상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울 서대문 밖. 인가도 없는 적적한 곳을 지나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 먹장 같은 밤이 찾아들었다.

김사공은 어서 인가를 찾으려고 길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사람의 울음소리가 틀림없었다. 김사공은 차차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보았더니 논두렁에 어떤 처녀가 밤중에 혼자 울고 있는 것이었다.

“너는 귀신이나, 사람이냐? 귀신이거든 어서 천당으로 오르고, 사람이거든 내 눈 앞에 똑똑히 보여라.”

김사공은 미심적은 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똑똑히 사람의 소리였다.

“귀신이면 내가 어찌 보이겠습니까? 저는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입니다. 내 물건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입었던 옷도 아무대로 벗어놓는 잘못된 저의 행동을 보시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며 종들을 시켜 가마에 태워 여기에 버려 놓고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허정승의 딸은 도포 자락을 잡으며 ‘나를 데리고 가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다마는 나는 제주 사는 사람이어서 곤란하다.”

“제주라도 좋으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김사공은 더욱 딱하다고 느껴졌다. 당시에는 제주 사람은 제주에 못가고 육지 사람도 제주에 가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김사공은 생각 끝에 이 처녀를 제주도로 데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서 나하고 같이 가자.”

배에 오를 때에는 다른 사공이 알아차릴지도 몰라 도로 자락에 허정승의 딸을 숨겨 몰래 올리고 배를 띄웠다. 명주 바다에 실바람이 일어 배는 제주 바다로 둥둥 떴습니다.

제주에 배를 붙이자, 관원이 알면 엄벌이 내릴 것이므로 밤이 되면 개, 고양이가

잠잘 때 살짝 아가씨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 방에 문을 잠그고, 일체 바깥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극히 조심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허정승의 딸도 어느덧 열여덟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허정승의 딸은 하도 답답했던지 남쪽 창문을 열어 놓고 바깥을 바라보다가 김사공을 불렀습니다.

“저기 소를 몰고 가는 것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고 머슴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주 사람은 모진 일만 해야 산다. 저건 머슴들이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밭갈러 가는 것이다.”

허정승의 딸은 북쪽 창문을 열어 놓고 보다가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다에 호이호이 솜비 소리(해녀들이 해산물을 따러 물 위에 나와서 숨을 급히 내쉬는 소리)는 무엇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우리 제주 사은 약산이니 모진 일만 해야 사는 곳이라 해녀들이 테왁, 망사리, 비창을 걸머지고 전복, 소라, 미역을 따는 소리가 된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다.”

“그동안 저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부지런히 살려고 할테니 망사리, 테왁, 비창을 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사공은 해녀 기구를 차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정승의 딸은 물질을 해서 많은 해산물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 어느덧 부자가 되었습니다.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과 결혼을 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허정승의 딸은 김사공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얻은 것은 하늘의 뜻이오니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는데 어떨까요?”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사공은 많은 해산물과 진주를 실어 서울로 올라가 임금님께 진상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그 기특함에 김사공에게 큰 벼슬을 주었고 허정승의 딸에게는 칠색구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허정승의 딸을 ‘구슬할망’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촌효부

신촌리 김씨 댁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일흔 살이 된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가 홀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김씨 댁 며느리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이야.”

“맞아,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온 고을에 널리 퍼졌고, 이 소문은 제주도를 살피기 위해 왔던 암행어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가?”

암행어사는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믿지 못해서 신촌으로 찾아갔습니다.

김씨 댁은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집이 크고 정결한 편이어서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은 꼭 머물다 갔습니다.

김씨 댁 며느리는 손님이 찾아와도 싫은 기색이 없이 정성껏 손님을 접대해서 보냈기 때문에 한번 신세를 진 사람들은 두고두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육지 손님으로 가장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육지에서 온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누추하긴 합니다만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는 암행어사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집안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아주 깨끗하여 며느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랑방에서 집안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정부 소문처럼 며느리가 호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며느리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고, 또 며느리의 행동을 문틈으로 눈여겨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하지?”

암행어사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궁금하여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며느리는 참기름을 짜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사랑방까지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 보면 대단히 부지런한 여인인걸.’

암행어사는 착한 며느리를 보며 소문이 맞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이 늦도록 참기름을 다 짜고 나서 뜨거운 참기름을 식히기 위해 참기름이 담긴 항아리를 바람이 잘 통하는 시어머니의 방 앞마루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얼른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기름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사랑에 손님도 들었는데 요강을 보기 싫게 놓아두면 어떻게 해.”

하고 말하면 참기름 항아리를 들고 가더니 오줌 항아리에 부어 버렸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참기름을 오줌으로 본 거입니다.

‘저런, 아까운 기름을 쏟아 버리다니. 며느리가 필쩍 뛰겠는걸.’

암행어사는 잠시 후에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소문난 효부 며느리지만 참기름을 오줌통에 부어 버린 시어머니를 그대로 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항아리가 있는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가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밤에 놓아둔 참기름 항아리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하며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참기름이 없어진 걸 안 며느리가 그대로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나 조바심을 내며 문틈으로 계속해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있던 항아리 보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여쭙었습니다.

“내가 오줌통으로 버렸다. 손님도 오셨는데 요강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시어머니는 참기름을 비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며느리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아 실수를 했구나하고 생각했는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치우지 못했어요. 일찍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오히려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착한 며느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아무리 뒤져도 없을 거야.’

암행어사는 효성스런 며느리를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리 효부라고 소문난 며느리지만 참기름을 오줌이라고 버린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다니, 암행어사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임금님께 아뢰어 이 며느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수월봉과 녹고물

옛날 고산리에 바닷가에 있는 자구내라는 동네에 한 어머니와 ‘수월’이라는 딸과 ‘녹고’라는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사느라 어머니는 고생이 심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느라 몸을 돌보지 않아 병이 든 것이다. 그래서 남매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좋다는 약초는 물론 깊은 바다에 사는 전복을 잡아다가 죽을 쑤어드리기도 하며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기를 빌며 갖은 애를 다 썼다.

“어머니 이 약 잡수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아파서 너희들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너무 고생이 심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를 모실 차례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다.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달여 드리고, 좋은 음식을 잡수시게 해도 점점 힘을 잃어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수월아, 난 오래 못 살 것 같다. 내가 없더라도 네가 저 녹고를 잘 보살펴 줘라.”

라고 어느 날 아침, 수월이를 붙들고 힘이 다 사그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 약을 먹고 기운을 내세요. 윗동네 아주머니도 어머니처럼 앓았는데 이제 아주 건강해 졌대요.”

수월이는 수척해진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웃으면서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들자 밖으로 나와 눈이 툭툭 붓게 울다가 물을 길러 밖으로 나갔다. 그때 마침 수월이네 집 옆을 지나던 스님이 수월이를 보더니

“무슨 일이고? 집에 무슨 일이 이시냐?”

하고 말을 걸어왔다.

“아 네, 저의 어머니가 병환이 나서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수월이는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거 참 딱하게 되었구나. 어디 내가 한번 볼까?”

“그래 주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월이는 좋아서 얼른 스님을 모시고 들어갔다.

스님은 어머니의 팔목을 잡아 한참동안 맥을 짚어보더니

“큰병이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약초를 캐어다 다려드리면 틀림없이 어머니의 병이 나을게야.”

하며 백가지의 약초를 일일이 다 말해주었다.

남매는 그 날부터 망태기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다. 높은 한라산을 오르내리고, 깊은 골짜기라도 약초가 있음직한 곳이면 가리지 않고 가서 약초를 캐어왔다.

“늑고야, 백가지 약초를 잡수시면 꼭 나오시겠지?”

“누나, 나도 그럴 거라고 믿어. 무엇보다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는 틀림없이 나오실거야.”

남매는 기쁜 마음으로 약초를 캐어 망태기에 담았다. 망태기가 가득해지면 집으로 가져다가 손질하며 밤을 지새는 것도 예사였고, 길을 잃어 애를 먹어도 어머니를 낮게 해드린다는 욕심에 하나도 힘든 줄을 몰랐다.

마침내 스님이 말해준 약초를 거의 다 모았다.

“누나, 이젠 어머니의 병이 나오시겠지?”

“그럼,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도운다잖아.”

남매는 약초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좋아했다. 그런데 ‘오갈피’라는 약초는 없었다.

“오갈피가 없네. 오갈피를 캐어와야겠다.”

남매는 다시 오갈피라는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

“누나, 오갈피는 높은 절벽 같은 곳에서 자란대.”

“그렇다는구나. 어서 찾아보자.”

남매는 오갈피를 찾기 위해 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나 바위산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오갈피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누나, 우리 마을 바닷가에도 절벽이 있잖아. 혹시 그곳에 오갈피가 있는게 아닐까?”

“참 그렇구나. 우리 그곳에 가보자.”

남매는 바닷가에 있는 절벽으로 가서 밑을 내려다보니 까마득하게 보였다. 그러나 오갈피를 찾아 나선 남매의 눈에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누나, 저거야! 저게 우리가 찾는 오갈피야!”

“정말 그렇구나. 오갈피가 여기 있네. 이젠 어머니의 병이 낫게 되었구나.”

남매는 절벽 틈에서 자라고 있는 오갈피를 발견하고 좋아했다.

“넌 여기서 내 손을 잡아주렴. 내가 내려가서 케 올께.”

“누나, 무섭지 않아? 내가 갈께.”

“아냐, 넌 너무 어려서 안돼, 내가 갈께.”

수월이는 바위틈에 발을 놓으며 밑으로 내려갔다. 떨어지면 죽을지 모르는 높은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수월이의 마음은 얼어붙었지만, 어머니의 병환을 낮게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오갈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야! 오갈피를 뺏았어.”

수월이는 오갈피를 뺏아들자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왔다.

“누나, 정말이야?”

남매는 너무나 좋아서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수월이와 녹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손에 힘을 잃고 말았다.

“악-”

그 순간 수월이의 몸은 한 송이의 꽃처럼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누나, 누나”

녹고는 정신없이 누나를 불러봤지만 수월이는 바위 위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녹고는 죽은 누나를 보며 영영 울었다. 그러자 녹고가 흘린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바위틈에서 샘물로 솟아올랐다.

그래서 지금이 이 물은 ‘녹고물’이라고 부르며, 낭떠러지가 있는 오름을 ‘녹고물 오름’, ‘물나리 오름’, ‘녹고 모루’라고 불리거나 수월봉이라고 불린답니다.

고삭불 장사

한림읍 상명리에 고삭불이라는 힘이 센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의 처가 한경면 두 모리에 있었는데 가을이 되자 출을 벨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일꾼이 없다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삭불은,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일꾼을 빌어서 출을 베어 드릴테니 걱정 말고 점심이나 차려서 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사위 중엔 자네가 제일이네.”

장모는 좋아하며 열 둘 정도의 사람이 먹을 만큼 점심을 만들어 출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보이지 않고 사위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일꾼을 빌어서 출을 베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일꾼은 다 어디 갔나?”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책임지게! 출을 베지 못하면 마소가 다 굶어 죽을 테니 자네가 잡아먹든지 구어 먹든지 하게. 점심은 놔두고 갈 테니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장모는 화가 나서 큰소리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삭불은 혼자 열두 일꾼이 먹을 점심을 다 먹은 후, 가시며 덩불이며 출을 가리지 않고 베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고삭불을 점심 그릇을 챙겨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는 걸 보자 장모는 화가 나서,

“저 출 밭 어떻게 할 텐가?”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출 다 베었습니다.”

고삭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장인은 사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튿날 날이 밝자 밭에 가 보니 출이 묶을 수도 없을 만큼 베어져 널리 있었습니다.

“여보게 저 출을 어떻게 거두어들일 건가? 좀 묶어 주게.”

“알았습니다. 밥이나 배불리 먹게 많이 주십시오.”

고삭불은 출을 묶으러 밭으로 갔습니다.

장인은 다시 사위의 먹을 점심을 말 등에 싣고 출 밭으로 가다 보니 출 밭에는 솔개가 사음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출 밭에 죽은 짐승이라도 있어 솔개 떼가 몰려온 건가?’

장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출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솔개처럼 보인 것은 상위가 출을 묶어 던지니 솔개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고삭불은 묶어 놓은 출을 묶어 한 짐에 저다가 처갓집 대문 입구에 쌓아 놓았습니다.

“여보게, 대문 앞에다 출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드나들기라 곤란하니 좀 치워 주게.”

장인이 사정을 하자 고삭불은,
“밥이나 많이 주면 치워 드리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삭불은 장모가 밥을 많이 주자 그제서야 출을 치워 주었습니다.

고삭불은 처갓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산촌에 산다고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해변가 마을에 장가를 들었는데 소라도 못 먹어봤네.”

하고 불평을 자주 늘어놓았습니다.

고삭불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눈치 채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세 딸을 데리고 가서 소라를 잡아다가 삶아서 사위를 불렀습니다.

고삭불은 삶은 소라를 다 먹고도 모자란 눈치를 보여 장모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인은 사위의 배가 큰 것을 알고는 딸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여 사위를 불렀습니다.

“흉년이라 고생이 많은 텐데 살이나 갖다 먹게.”

“고맙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더도 말고 한 짐만 자네가 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가게.”

장인은 사위에게 쌀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삭불은 장인이 주는 쌀을 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장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날이 다 저물었는데 가다가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찌려고 그러나. 여기서 내일 아침에 가게.”

“저는 도둑을 무서워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삭불은 장인의 말을 듣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상명리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뒤가 마려워서 고삭불은 짐을 진 채로 뒤를 보고 있는데 숲 속에 숨어있던 도둑

들이 쌀을 보고 덤벼들었습니다. 도둑들은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쌀을 빼앗을 줄 알았는데 고삭불에겐 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삭불은 달려드는 도둑들을 잡아서 멀리 던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도둑은 고삭불을 알아보고,

“저 놈은 고삭불이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난다구.”

하면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고종달 이야기

옛날 제주에는 힘이 센 장수가 많이 있었나 봐.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에 그런 힘센 장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제주도의 산과 무이 좋아서라고 믿었지.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만 세상 모든 자연에는 기운이란 게 있단다. 건강한 사람 복 기운이 세다고 하는 것처럼 산에서도 기운이 흘러 나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제주도의 산에서도 아주 좋은 기운이 많이 흘러나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힘이 세었지. 게다가 제주도엔 한라산의 좋은 기운이 듬뿍 녹아 있는 물이 땅속 깊은 곳을 지나 여기저기서 샘솟고 있었어.

그 소문을 중국 임금도 어떻게 듣게 되었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운이 센 줄 알던 중국 임금은 아주 배가 아팠단다.

중국임금은 궁리 끝에 제주도로 사람을 보냈어. 제주도에 더 이상 힘센 장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말이야.

중국옛 제일가는 풍수지리학자를 뽑아 보냈지. 그 사람이 바로 고종달이었어.

고종달이 맨 먼저 도착한 곳은 구좌읍 성산면에 있는 종달리라는 마을이야. 거기 도착한 고종달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종달리요.”

그러거든.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자기 이름과 똑같은 마을 이름도 다 있다니. 중국도 아니고 제주도에 말이야.

그래서 고종달은 ‘옳거니.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거지.

고종달을 냄새를 잘 맡는 개 한 마리와 긴 쇠꼬챙이를 가지고 종달리를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의 산과 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개가 냄새를 맡고 고종달은 미리 준비한 지도를 보면서 좋은 산이 보이면 그 꼭 대기에 올라가 산 기운이 솟아나는 곳을 틀어막았지. 또 샘이 시작되는 곳도 찾아내 더 이상 맑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막으려고 했어.

고종달이 ‘지장새미’라는 샘물이 솟는 곳에 다다를 무렵이었어. 한 농부가 짚으로

만든 비옷을 입고 소를 끌며 밭을 갈러 나왔어. 그 농부는 오월 장마 때라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지장새미에 가서 돛그릇에 물을 받아 가지고 왔지. 받은 물은 고부랑 나무 아래, 걸치고 비옷으로 잘 덮어두었어.

한참 밭은 가는데 웬 처녀가 밭 가운데로 급히 뛰어 오더니,

“저를 좀 숨겨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난데없이 숨겨 달라니, 왜 숨겨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하고 물었지.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이래.

자기는 지장새미를 지키는 물의 신인데, 중국서 건너 온 고종달이란 사람이 글썽, 제주도 물 기운을 다 막아 못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다행히 자기는 그것을 미리 알게 되어 이렇게 도망쳐 나와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아, 듣고 보니 큰일이거든. 물이 다 마르면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게 뻔했지.

농부는 걱정이 되어.

“그럼 어떻게 도우면 좋겠소?”

하니, 처녀는 이렇게 말해.

“방금 떠 온 물 속에 제가 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낯선 사람이 묻거든 절대로 모른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처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비옷으로 덮어 둔 물그릇 안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농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조금 지나가 낯선 사람이 밭 가운데로 들어오며 손으로 점을 쳤어. 그가 바로 고종달이었지.

고종달을 손 점을 열심히 치더니,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수라. 행기수에 우장수다.”

“여보시오. 고부랑 나무 밑에 행기수가 있소?”

행기수란 돛그릇 안에 들어 있는 물이란 뜻이야. 그러니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 맞추는지 몰라. 농부는 순간 속으로 뜨끔했지. 하지만 시치미를 떼고,

“없소.”

하고 딱 잘라 말했어.

고종달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분명히 점을 쳐보니, 고부랑 나무 밑에 행기수라고 나오는데.

고종달은 또 물었지.

“우장 썩은 우장수도 없소?”

우장수는 바로 비웃으로 덮어 둔 물이란 뜻이니, 농부는 또 한번 크게 놀랐어. 하지만 이번에도 시치미를 떼면서,

“우린 그런 것 듣도 보도 못했소이다.”

이랬어.

고종달은 그만 거기서 맥이 탁 풀렸어.

제주도가 중국 땅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곳이라 처음엔 만만히 봤었지만, 곳곳에 울창한 숲이 있어 산을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 또 산을 따라 땅 속 깊이 흐르다가 샘솟는 물은 여기 저기 꼭꼭 숨어 있어서 찾아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 게다가 오랫동안 돌아다녀 다리도 아프고 배도 너무 고했던 거야.

결국 고종달은 지장새미 물 기운을 막지 못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천만 다행이지. 거기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제주도 물이 바짝 말라 어떻게 되었겠어? 더구나 비웃 속에 숨겨둔 순박한 농부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주도는 지금처럼 기 좋은 곳이 못 되었을 거야. 그 농부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해야겠지.

그럼 그 뒤에 고종달은 어떻게 되었냐구? 그야 모르지.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도 해.

<부록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문항1) 용철이는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접시를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접시 10개를 깬습니다.

용철이는 좋은 일을 했나요, 나쁜 일을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2) 정미는 같은 반 친구가 가난해서 학용품을 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엄마 지갑에서 100원을 몰래 훔쳐서 학用品을 사주었습니다.

정미는 좋은 일을 했나요, 나쁜 일을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3) 희철이는 과자를 사먹으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희철이는 잘 했나요, 잘못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4) 미경이는 엄마가 시장가신 사이에 과자를 훔쳐 먹으려다가 잘못해서 그릇 1개를 깬습니다.

미경이는 잘 했나요, 잘못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5) 도현이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2,000원을 몰래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도현이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6) 순자는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7) 민범이는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접시를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접시 1개를 깼습니다.

민범이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8) 혜리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서 100원을 몰래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혜리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9) 현수는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2,000원을 받았습니다.

현수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10) 인순이는 엄마가 시장 가신 사이에 과자를 훔쳐먹으려다가 잘못해서 접시를 10개 깼습니다.

인순이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11) 정남이는 같은 반 친구가 가난해서 노트를 사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엄마 지갑에서 2,000원을 몰래 훔쳐서 노트를 사 주었습니다.

정남이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문항12) 희영이는 과자를 사먹으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2,000원을 받았습니다.

희영이는 잘 했나요, 잘못 했나요?-----

얼마나 나쁜가요?-----

<부록 3>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체크지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남, 여

반응 이야기	1	2	3	4
반응	나쁘지 않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아주 많이 나쁘다
1. 이야기 GH				
2. 이야기 GL				
3. 이야기 BL				
4. 이야기 BL				
5. 이야기 BH				
6. 이야기 GL				
7. 이야기 GL				
8. 이야기 BL				
9. 이야기 GH				
10. 이야기 BH				
11. 이야기 GH				
12. 이야기 BH				

<부록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평정 척도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이 름:

<질서 덕목 12항문>

질서 1	단계	▷ 복도와 계단에서 걷는다.	실 시 시 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뛰어 다닌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걷는다.				
	③	주의를 주면 바르게 걷는다.				
	④	대체로 바르게 다니는 편이다.				
	⑤	언제나 바르게 다닌다.				
질서 2	단계	▷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한다.	실 시 시 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정리하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정리한다.				
	③	정리하고자 하면 바르게 정리한다.				
	④	어른이 지켜보면 잘 정리한다.				
	⑤	자신이 사용한 놀이감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질서 3	단계	▷ 신발을 바르게 신는다.	실 시 시 기			
			1회	2회	3회	4회
	①	혼자서는 전혀 신지 못한다.				
	②	어른이 조금 도와주면 신을 수 있다.				
	③	혼자 신는 편이다.				
	④	혼자 스스로 신으려고 애쓴다.				
	⑤	혼자 신발을 바르게 신는다.				
질서 4	단계	▷ 신발을 바르게 정리한다.	실 시 시 기			
			1회	2회	3회	4회
	①	항상 신발을 함부로 벗어 놓는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정리한다.				
	③	주의를 주면 곧바로 잘 정리한다.				
	④	어른이 주위에 있으면 잘 정리한다.				
	⑤	항상 스스로 잘 정리한다.				

질서 5	단계	▷ 자신의 소지품은 제자리에 스스로 정리해 놓는 습관을 가진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제자리에 정리하라고 해도 아무 곳이나 방치한다.				
	②	제자리에 정리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정리한다.				
	③	제자리에 정리하라고 하면 잘 정리한다.				
	④	어른이 주위에 있으면 잘 정리한다.				
	⑤	항상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한다.				
질서 6	단계	▷ 입었던 옷을 잘 정리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언제나 옷걸이에 걸지 않고 껌 줄도 모른다.				
	②	얘기하면 마지못해 정리한다.				
	③	얘기하면 잘 정리한다.				
	④	가끔 바르게 정리할 때도 있다.				
	⑤	언제나 스스로 잘 정리한다.				
질서 7	단계	▷ 의자에 바르게 앉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바르게 앉으라고 얘기해도 바르게 앉지 않는다.				
	②	얘기하면 마지못해 바르게 앉는다.				
	③	바르게 앉으라고 얘기하면 바르게 앉는다.				
	④	어른이 주의에 있으면 바르게 앉는다.				
	⑤	언제나 의자에 앉는 자세가 바르다.				
질서 8	단계	▷ 앉았던 의자를 제자리에 놓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의자를 제자리에 놓을 줄 모른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제자리에 놓는다.				
	③	주의를 주면 제자리에 잘 놓는다.				
	④	가끔 제자리에 놓는다.				
	⑤	언제나 제자리에 잘 놓는다.				

질서 9	단계	▷ 모든 놀이를 할 때 차례를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언제나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②	교사가 얘기하면 마지못해 차례를 지킨다.				
	③	교사가 말하면 차례를 잘 지킨다.				
	④	가끔 스스로 차례를 지키는 편이다.				
	⑤	언제나 스스로 차례를 잘 지킨다.				

질서10	단계	▷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교통신호를 지키는 척 한다.				
	③	주의를 주면 교통신호를 바르게 지킨다.				
	④	어른이 주위에 있으면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⑤	어른이 주위에 없어도 항상 잘 지킨다.				

질서11	단계	▷ 함께 정한 놀이할 때의 규칙을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어른이 지적해 주어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②	주의에서 지적을 하면 마지못해 지킨다.				
	③	어른이 지적을 해주면 잘 지킨다.				
	④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잘 지킨다.				

질서12	단계	▷ 차내에서의 규칙을 잘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지킨다.				
	③	주의를 주면 잘 지킨다.				
	④	주위의 어른이 지켜보면 규칙을 잘 지킨다.				
	⑤	항상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킨다.				

<예절 11문항>

예절 1	단계	▷ 어른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인사를 하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③	가르쳐 주면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④	가끔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⑤	항상 스스로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예절 2	단계	▷ 어른께 선물을 받을 때 인사를 하면 받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하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한다.				
	③	그르쳐 주면 잘 한다.				
	④	가끔 스스로 잘 하는 편이다.				
	⑤	스스로 인사를 잘 한다.				
예절 3	단계	▷ 웃어른께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하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한다.				
	④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끔은 잘 하는 편이다.				
	⑤	언제나 잘 한다.				
예절 4	단계	▷ 친구들과 인사를 잘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전혀 인사를 하지 않는다.				
	②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③	가르쳐 주면 인사한다.				
	④	친구들과 가끔 인사를 잘한다.				
	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한다.				

예절 5	단계	▷ 자기가 잘못된 일을 사과할 줄 안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사과한다.				
	③	가르쳐 주면 사과할 줄 안다.				
	④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과하는 편이다.				
	⑤	언제나 스스로 사과할 줄 안다.				
예절 6	단계	▷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지키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지킨다.				
	③	가르쳐 주면 그대로 지킨다.				
	④	잘 지키는 편이다.				
	⑤	언제나 잘 지킨다.				
예절 7	단계	▷ 식사할 때 반찬을 이것저것 뒤적거리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지키지 않는다.				
	②	엄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지킨다.				
	③	지적해 주면 지킨다.				
	④	잘 지키는 편이다.				
	⑤	언제나 잘 지킨다.				
예절 8	단계	▷ 밥알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지저분하게 남긴다.				
	②	지적해 주면 마지못해 먹는다.				
	③	지적해 주면 잘 먹는다.				
	④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편이다.				
	⑤	언제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예절 9	단계	▷ 올바르게 앉아서 식사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지키지 않는다.				
	②	지적해 주면 마지못해 따른다.				
	③	지적해 주면 바르게 한다.				
	④	지적해 주면 바르게 한다.				
	⑤	언제나 올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를 한다.				

예절10	단계	▷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지키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따른다.				
	③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른다.				
	④	잘 지키는 편이다.				
	⑤	언제나 잘 지킨다.				

예절11	단계	▷ 음식물을 손으로 먹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지키지 않는다.				
	②	지적해 주면 마지못해 지킨다.				
	③	지적해 주면 잘 지킨다.				
	④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잘 지키는 편이다.				
	⑤	언제나 잘 지킨다.				

<절제 17문항>

절제 1	단계	▷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가지고 논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언제나 혼자 독점하여 가지고 논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함께 가지고 논다.				
	③	주의를 주면 함께 잘 가지고 논다.				
	④	대체로 친구와 함께 잘 가지고 노는 편이다.				
	⑤	항상 장난감을 친구와 함께 잘 가지고 논다.				

절제 2	단계	▷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한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멈춘다.				
	③	주의를 주면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④	대체로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편이다.				
	⑤	언제나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절제 3	단계	▷ 남의 물건에 욕심 내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아무 물건이나 가져간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다시 둔다.				
	③	주의를 주면 남의 물건을 욕심 내지 않는다.				
	④	대체로 남의 물건을 욕심 내지 않는 편이다.				
	⑤	언제나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절제 4	단계	▷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간다.				
	②	주의를 줄 때만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③	한번 주의를 주면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④	대체로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 편이다.				
	⑤	언제나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 장난을 치지 않는다.				
절제 5	단계	▷ 정리하는 시간을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정리 시간에 상관없이 놀이를 계속한다.				
	②	정리를 시작하지만 곧 다시 하던 놀이를 계속한다.				
	③	교사가 지시하면 활동을 멈추고 정리한다.				
	④	교사의 간접적인 암시로 정리할 시간을 알려주면 지킨다.				
	⑤	교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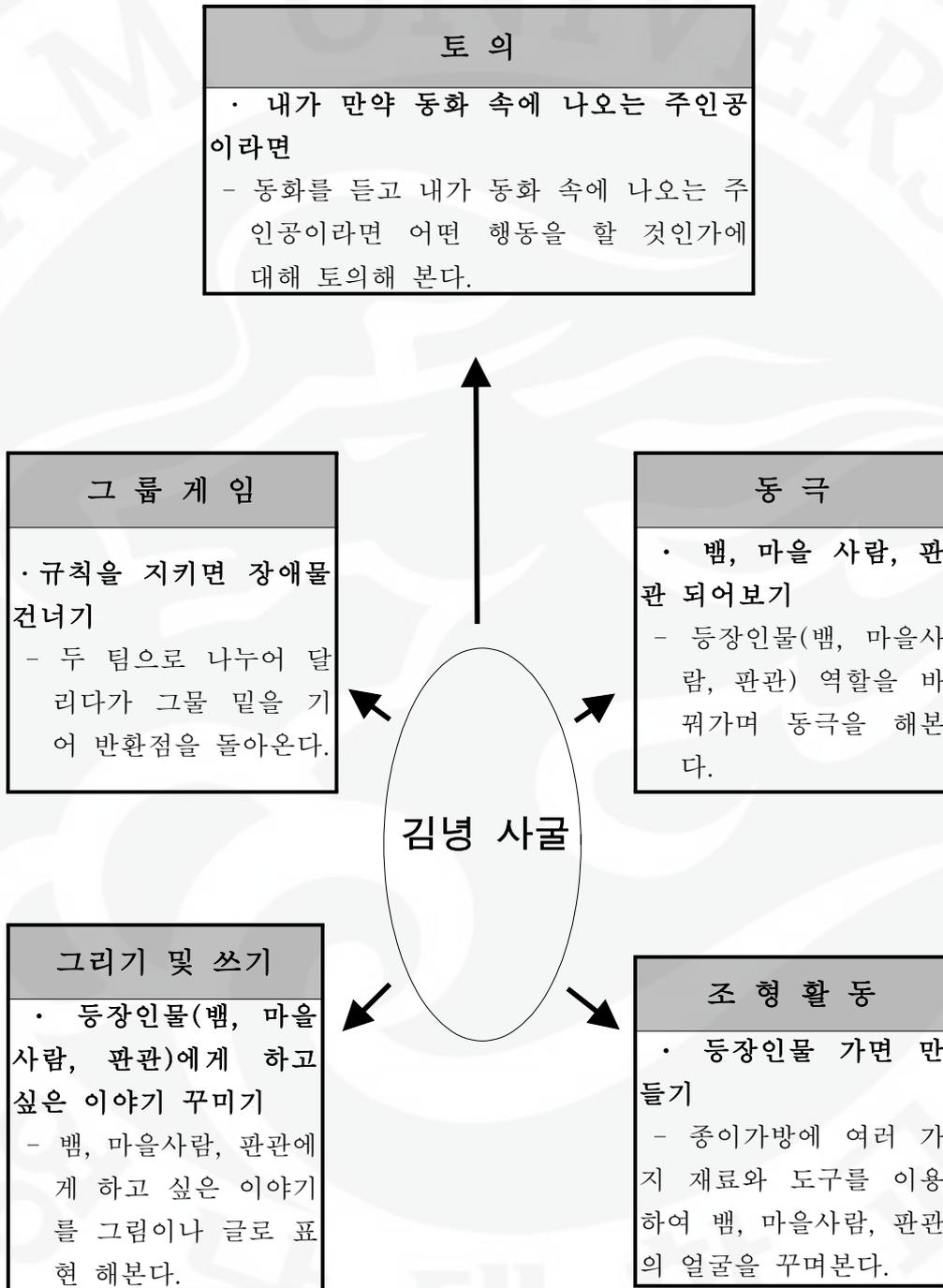
절제 6	단계	▷ 적당량의 음식을 먹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전혀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않는다.				
	②	어른이 알려주면 음식을 덜어 놓는 척 한다.				
	③	어른이 말을 해주면 적당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④	스스로 적당량의 음식을 조절하여 먹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적당량의 음식을 조절하여 먹는다.				
절제 7	단계	▷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조절하여 이야기 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조절하지 못한다.				
	②	주의를 줄 때만 적당한 소리로 이야기한다.				
	③	주의를 주면 목소리를 잘 조절하여 이야기한다.				
	④	대체로 목소리를 잘 조절하여 이야기하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적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절제 8	단계	▷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신호를 전혀 볼 줄 모른다.				
	②	주의를 주면 신호등을 지키지도 한다.				
	③	어른이 지시하면 도로를 자로 횡단한다.				
	④	간접적인 지시에도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한다.				
	⑤	스스로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다.				
절제 9	단계	▷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교사의 지시가 있어도 제멋대로 행동한다.				
	②	교사가 지시 할 때만 마지못해 따른다.				
	③	교사가 지시하면 잘 따른다.				
	④	대체로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는 편이다.				
	⑤	스스로 잘 모이고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절제10	단계	▷ 말할 때 차례를 지킨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차례를 지켜서 말할 줄 모른다.				
	②	주의를 주어도 차례를 지켜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③	주의를 주면 차례를 잘 지켜 말한다.				
	④	비교적 차례를 지켜서 말할 줄 안다.				
	⑤	항상 스스로 차례를 지켜서 말할 줄 안다.				
절제11	단계	▷ 동, 식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동, 식물을 함부로 다룬다.				
	②	주의를 줄 때만 괴롭히는 행동을 멈춘다.				
	③	주의를 주면 동, 식물을 잘 대한다.				
	④	비교적 동, 식물을 잘 대하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동, 식물을 소중히 다룬다.				
절제12	단계	▷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근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수도꼭지를 잘 잠그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척 한다.				
	③	주의를 주면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				
	④	어른이 주위를 주면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				
	⑤	항상 스스로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				
절제13	단계	▷ 풀과 싸인펜 뚜껑을 반드시 덮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회
	①	주의를 주어도 풀과 싸인펜 뚜껑을 거의 덮지 않는다.				
	②	주의를 줄 때만 풀과 싸인펜 뚜껑을 덮는다.				
	③	주의를 주면 지시하면 풀과 싸인펜 뚜껑을 잘 덮는다.				
	④	간접적인 지시로도 풀과 싸인펜 뚜껑을 덮는다.				
	⑤	항상 스스로 풀과 싸인펜 뚜껑을 잘 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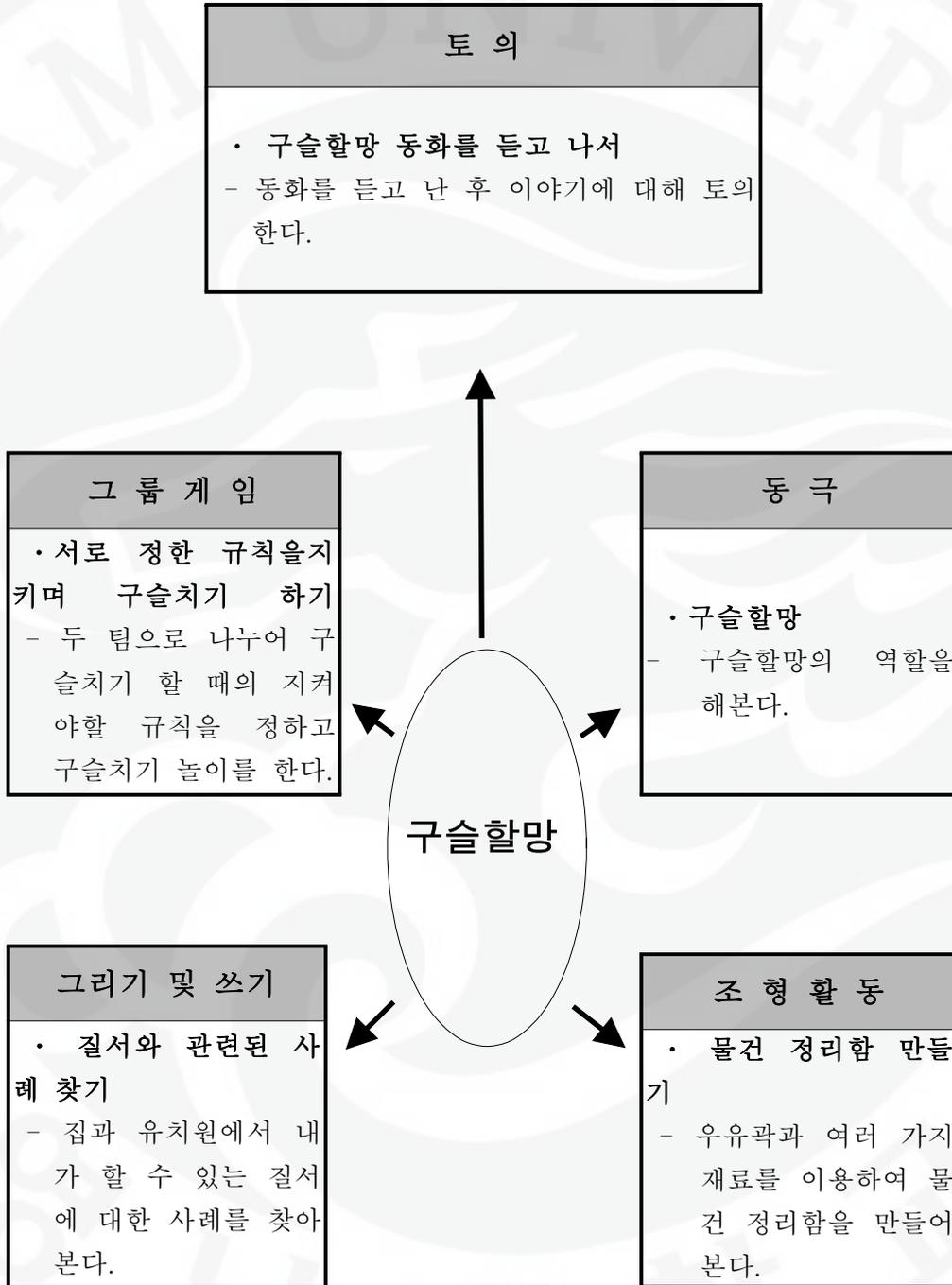
절제14	단계	▷ 비누를 사용한 후 물에 녹지 않게 둔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비누를 사용한 후 아무 곳에나 놓는다.				
	②	주의를 주면 지키는 척 한다.				
	③	주의를 주면 비누를 제자리에 놓는다.				
	④	어른이 주위를 주면 비누를 제자리에 놓는다.				
	⑤	항상 스스로 비누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절제15	단계	▷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아껴쓴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주의를 주어도 아껴쓰지 않는다.				
	②	주의를 주면 마지못해 아껴쓴다.				
	③	주의를 주면 잘 아껴쓴다.				
	④	비교적 아껴쓰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아껴 쓸 줄 안다.				
절제16	단계	▷ 풀, 본드, 스키치테이프 등의 접착제의 사용을 구별한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사용을 구별하지 못한다.				
	②	가르쳐 주어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③	가르쳐 주면 바르게 사용한다.				
	④	비교적 구별하여 사용하는 편이다.				
	⑤	항상 스스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안다.				
절제17	단계	▷ 다시 사용 가능한 종이를 되살려 쓸 줄 안다.	실시시기			
			1회	2회	3회	4회
	①	가르쳐 주어도 전혀 되살려 쓰려고 하지 않는다.				
	②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되살려 쓴다.				
	③	가르쳐 주면 즐겁게 되살려 쓴다.				
	④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끔 사요하는 경우가 있다.				
	⑤	항상 스스로 다시 사용 가능한 종이를 즐겁게 되살려 쓰려고 한다.				

<부록 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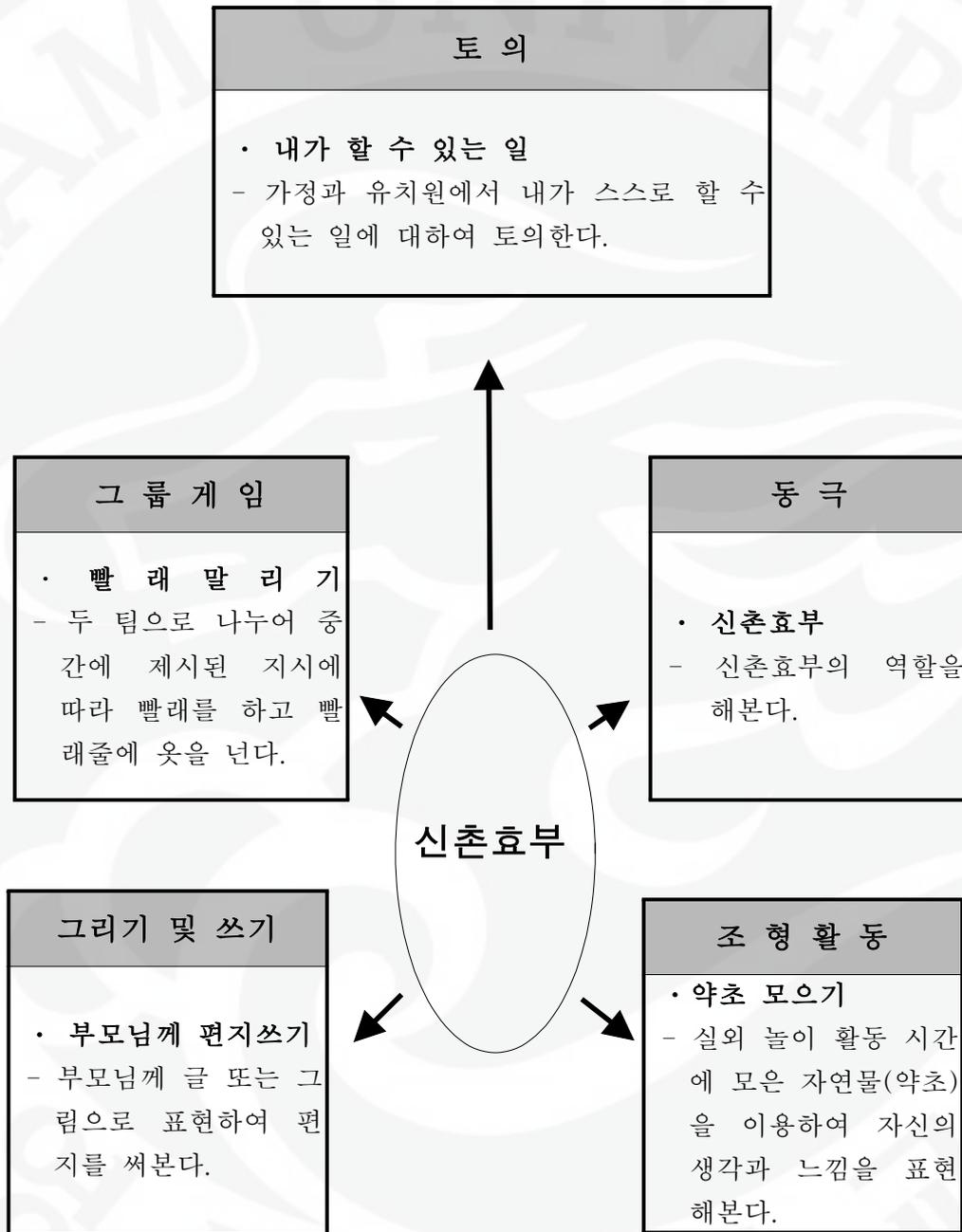
동화 : 김녕 사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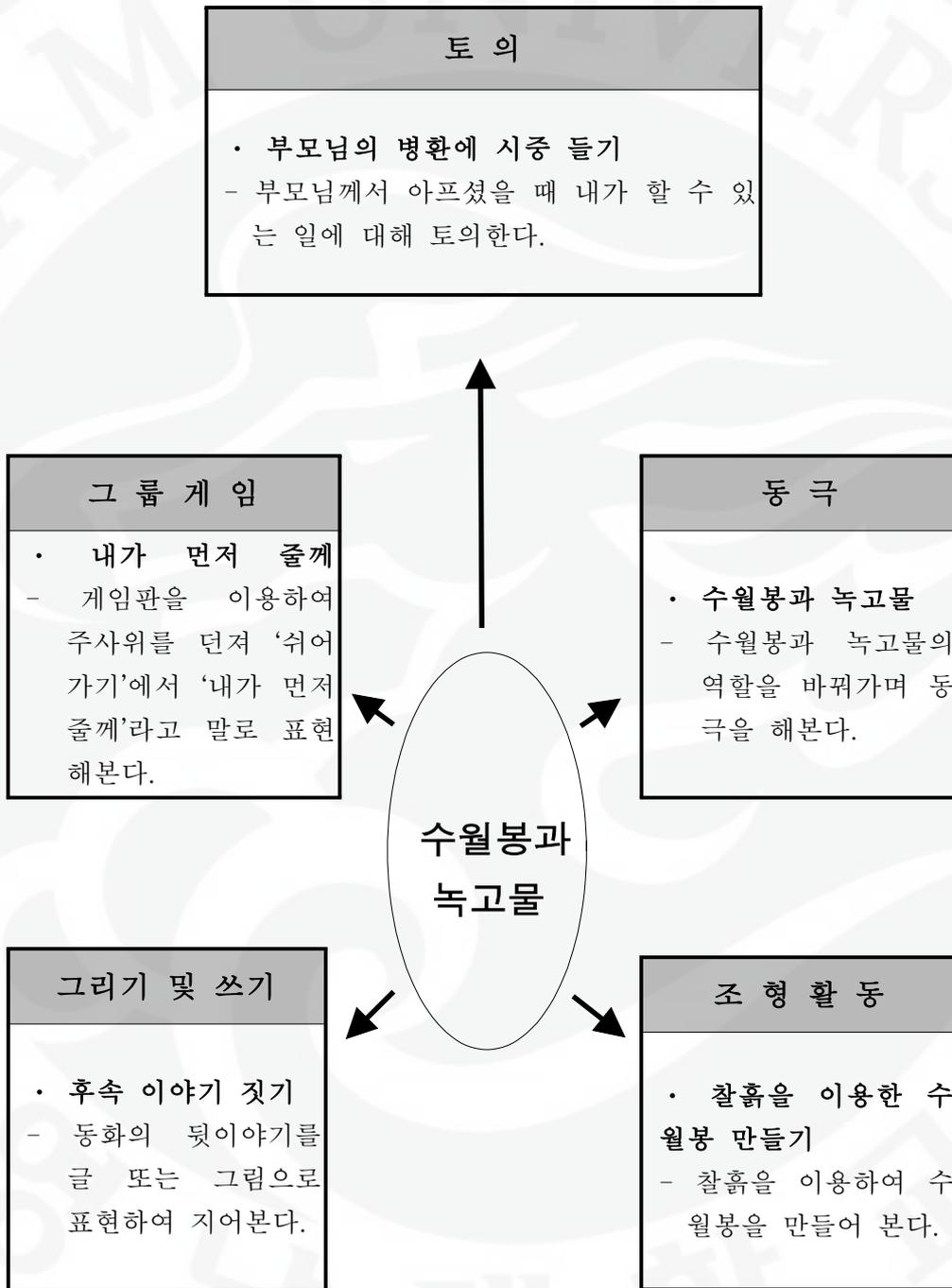
동화 : 구슬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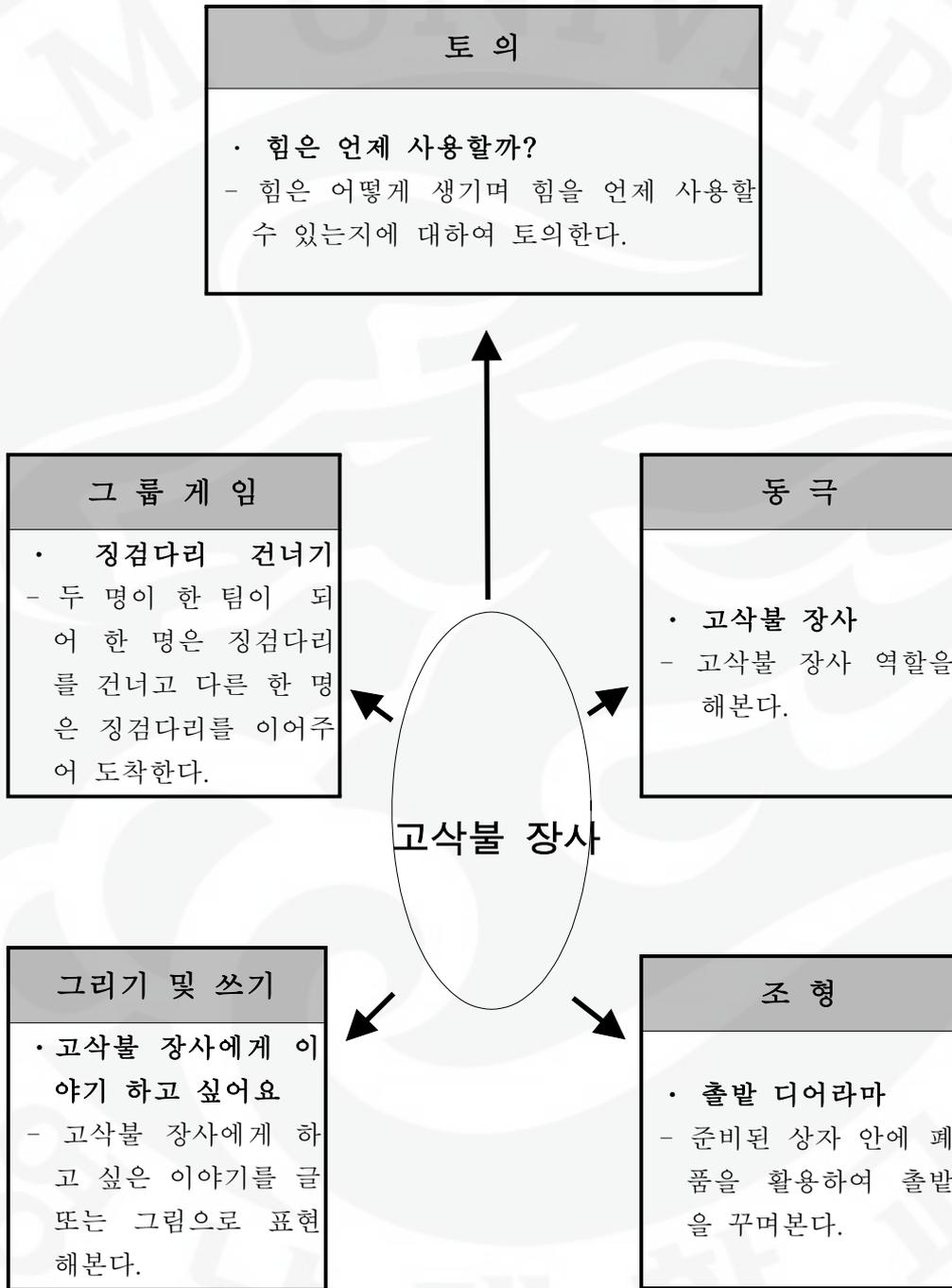
동화 : 신촌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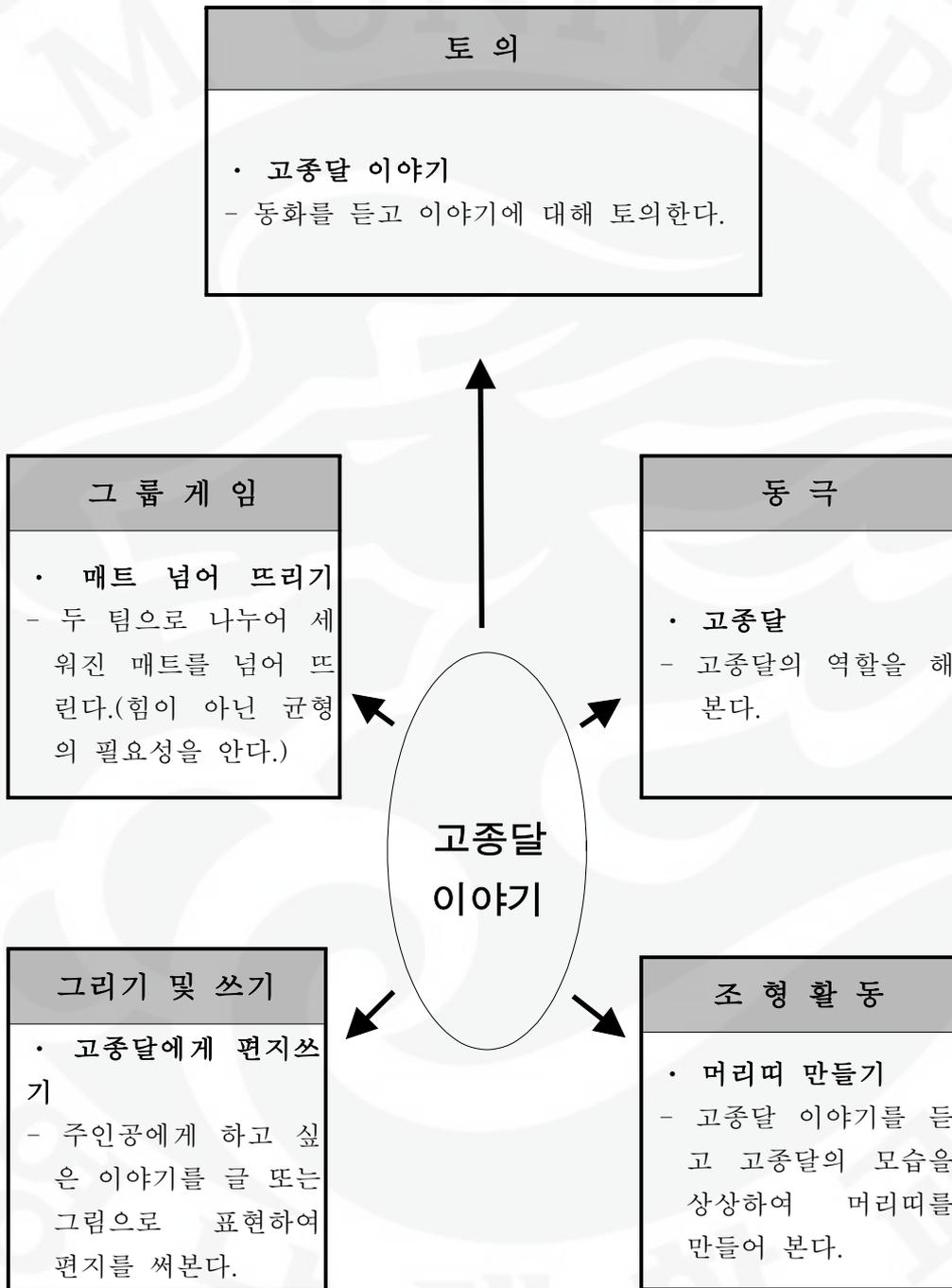
동화 : 수월봉과 녹고물



동화 : 고작불 장사



동화 : 고종달 이야기



M. A. Thesis

The Effect of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of Moral Ability

-centering on Jeju traditional tales-

Boo Kyoung-Se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Ryu, Jeom Sook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s that can prompt the development of moral ability of children who have the experience of moral education activities through Jeju traditional fairy tales, by examining the effect of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mediated by Jeju traditional fairy tales which presented situations of moral conflicts on young children's moral judgement and moral activity.

Study objects were randomly sampled 60 5 year old children of 2

classes in H private kindergarten in Jeju City in Jeju-do. One class was the experiment group that executed integrated moral education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s, and the other class was the control group that executed general kindergarten program.

Moral judgement test was executed using Hebble(1971)'s moral judgement testing tool for young children in the pre-test to measure young children's moral ability, moral activity was measured using young children's basic living habits measurement made by National Education Research Center(1995).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s was executed 30 times for 6 weeks objecting the experiment group,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is integrated activity of discussion · juvenile drama · group game · drawing and writing · shaping activities. Activity using general kindergarten program was executed objecting the control group. After the end of 6 week experiment, the post-test which was the same as pre-test was executed.

The study subject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what effect does integrated moral education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 have on young children's moral judgement.

There was meaningful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moral judgement score of young children in the experiment group that executed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 and the score of young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that executed activity using general kindergarten activity. That is, it can be said that integrated moral education using Jeju fairy tale improves young children's judgement.

score of young children in the experiment group that executed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 and the score of young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that executed activity

using general kindergarten activity. That is, young children's moral activity was examined by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order, propriety and temperance which are the sub-areas of moral activity, an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 in all three areas. We can know that integrated moral education activity using Jeju traditional fairy tale improve young children's moral activity. Especially, there was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area of temperance between young children i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부 록

1. 제주 전래동화 6편
2.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검사
3. 도덕판단 반응치의 체크지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평정 척도
5. 제주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도덕교육활동안